

청년생활

4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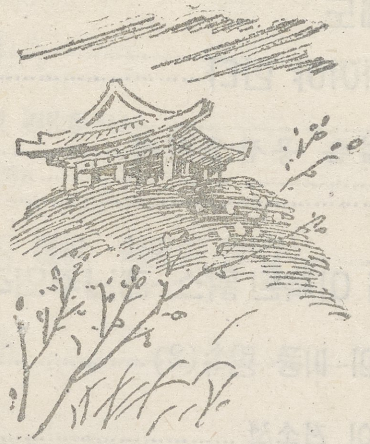
황페화된 남녘 땅을 갈아 엎을 날은 오고야 말것이다.

(윤 영경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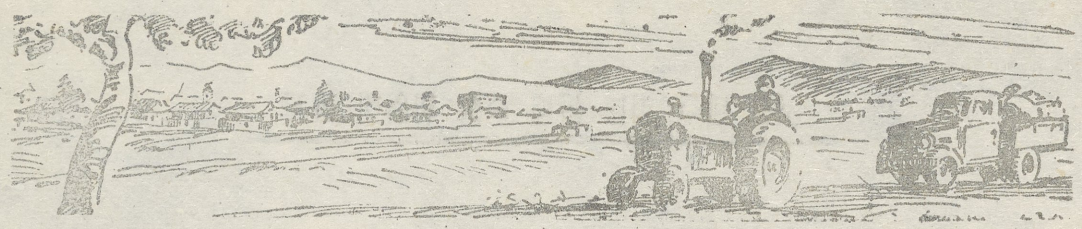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75)



1964. 4



차 례

표지 1면; 봄 그림 유 충상

4월의 광장에 폭풍을 일으키라!

김 병 영

조국의 남녘에 새로운 위험이 닥쳐왔다. 20여 년 전 조선 인민의 철천의 원한을 남기고 패주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오늘 다시 기여 들고 있다.

벌써 남조선에는 《한일 합병》의 전야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 매국적이며 굴욕적인 《한일 회담》이 마지막 고비에 이른 것이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2중적인 노예의 운명이 남녘 겨레들의 머리 우를 먹구름처럼 떠돌고 있다.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의 옛 지위를 회복하려는 망상에 미쳐 날뛰고 있다.

이미 재침의 척후병들은 기여 들었고 독소는 뿌려졌다. 50여 개의 상사와 회사들의 대리점, 출장소들이 서울 거리 한판에 둥지를 틀었다. 썩어 빠진 일제 풍조가 양풍과 함께 득세하는 가운데 《창가 학회》라는 종교 단체까지 침입했다.

일제의 본격적인 재침은 시간을 다투고 있다. 《한일 회담》의 직접적 조종자인 미제는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의 길잡이로 나선 박 정희 도당은 분별 없이 서둘고 있다.

민족의 량심이 있고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 엄중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24일 서울 대학교, 고려 대학교, 연세 대학교 학생들의 애국적인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의 방방 곡곡에 타번졌다. 매국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단호히 떨쳐 나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천백 번 정당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청춘의 정열이 어찌 폭발치 않고 그대로 있겠는가. 그들의 투쟁은 외래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국 지성의 표현이다.

오늘 일제 재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조선 현실은 과연 어떤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절규하여 거리와 광장을 피로 물 들인 4.19 인민 봉기도 이 해에 네 돐을 맞는다.

보라! 그 날의 광장에 무엇이 군림하고 있는가, 무엇이 짓밟히고 있는가. 보다 횡포 무도한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총검만이 란무하고 있지 않는가.

그 총검의 서슬에 얼마나 많은 애국적인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검거 투옥되였으며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는가. 자주 통일이란 말 한 마디에 사형을 언도 받아야 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기에 혈안이 된 박 정희 도당은 파쑈와 테로로 악명 높은 히틀러의 저서 《마잉 캄프》까지 연구해 가면서 남녘을 총검의 숲으로 뒤덮었고 살륙의 도가니로 전변시켰다. 오늘 남조선이 세계에 으뜸 가는 군사 경찰 《국가》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무엇을 어쩌자고 이리도 서슬 푸른 총검을 림립시키고 있는가.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다. 무너져 가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여지 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아니 생존의 권리마저 박탈당하였다.

700 만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수 십만의 류랑 고아들이 문전 걸식하고 있다. 30만 이상의 녀성들이 달리는 생계를 이을 길 없어 치욕스러운 륜락의 길에서 몸부림친다. 설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라 해도 최저 생활비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기아 임금에 쪼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농민들 역시 박 정희 도당의 반동적인 《중농 정책》과 가혹한 수탈로 하여 그나마의 농촌 경리마저 완전히 파산 당하였다. 봄은 왔어도 밭 갈 소가 없고 씨 뿌릴 종자가 없다. 130만 호를 넘는 절량 농민들의 울부짖음이 메마른 황야를 뒤덮었다.

처처에서 죽음과 죽음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난다. 자살자만도 한 해 동안에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자살이 현대인의 류행인지도 모르겠다. 음독, 투신, 교수, 분신 갖가지 방법으로 하루를 두고도 수 없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 가고 있다.》(《령남 일보》 1964년 2월 9일 호)

일할래야 일할 곳이 없고, 일을 해도 살'길이 캄캄하기만 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인민들에게는 사는 것이 하나의 《기적》으로 되고 있다. 현실은 이렇다.

여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기여 들어 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로략질을 감행한다면 남조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인민들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적인 노예의 멍에를 걸머지게 될 것이며 벌거 벗은 산야와 깊이 잠들어 버린 공장과 황폐한 농토가 송두리채 탕진되고 말 것이다. 삼천만의 일치한 념원이며 시각을 다투는 조국 통일의 길에 보다 큰 장해가 가로 놓일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 침략 세력을 돌격대로 하는 범죄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에 끌려 들어 수치스러운 운명을 강요 당할 것이다.

《한일 회담》을 분쇄하는 것—이것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과업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전체 인민들이여!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배들을 반대하는 판가리 싸움에서 중도반단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굴복과 패배이며 자멸이다.

《한일 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박살하라!》, 《제 2의 리완용이 물러 가라!》, 《미제는 한일 회담에 관여 말라!》 망국적인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나와 부르짖은 그날의 구호를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미제는 일제 재침의 조종자이며 박 정희 도당은 그의 길잡이다. 조종자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지 않고, 길잡이인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함이 없이 어찌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 책동을 꺾어 버릴 수 있겠는가.

4월의 준엄한 교훈을 잊지 말라. 어찌하여 그대들은 오늘 또다시 이처럼 투쟁에로 떨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였는가. 그 날에 흘린 피가 적어서인가? 희

생이 적어서인가? 아니다. 4, 19 인민 봉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그 날의 4 주년을 맞는 오늘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라. 경찰의 흉탄을 맞고 남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굴하지 않은 마산의 《불씨》 김 주렬 소년은 얼마나 용감했으며 광화문 네 거리에서 《계엄군》의 땅크를 빼앗아 타고 경찰의 기관총 바리케트를 누벼 댄 서울의 청년 학생들은 얼마나 대담했는가! 《경무대》, 《중앙청》, 《한 미 경제 협조처》를 습격한 그들은 얼마나 용맹했으며 경찰의 백차와 《자유당 본부》, 《특무대》, 《서울 신문사》, 《반공 회관》, 《동대문 경찰서》를 불태워 버린 그들은 얼마나 도도했는가! 적의 화약고와 무기고를 점령하고 손에 무장을 든 그들은 얼마나 슬기로왔는가!

4, 19 용사들은 맨주먹으로 궐기하여 리 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했고 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으며 미제의 조선 침략사에 치명을 기록했다.

영웅적 4, 19 인민 봉기!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정과 학정에 대한 인민들의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억압과 착취에 대한 피의 항거였다. 또한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였다. 그러기에 200 여 명의 용감한 청년 학생들이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4월의 광장에 바쳤으며 6,300여 명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적의 총탄을 맞고 피흘리면서도 끝까지 싸웠다.

그러나 그 날의 피의 대'가는 깡그리 유린 당하였으며 정신은 무참히 모독 당하였다. 야수적인 보복을 받았다.

원인은 어데 있는가? 누가 친미 주구 리 승만이 거꾸러진 자리에 일제의 주구 노릇까지 하는 박 정희 도당을 내세워 오늘의 남조선을 그 꼴로 만들어 놓았는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알고 있다. 그의 장본인이 다름 아닌 《원조자》의 탈을 쓰고 기여 든 미제 침략자임을.

미제, 미제 침략자야말로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다.

지체 없이 미제 침략자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라!

그리고 출로를 민족 내부에서 찾으라.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일제의 재침 책동을 무자비하게 분쇄하라!

북반부에는 남조선을 경제적 파산에서 구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도와 줄 충분한 밑천이 있다. 하거늘 무엇 때문에 원쑤 일제에게까지 예속되면서 구걸질을 하겠는가.

지난 3월 27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에서는 공화국 정부가 남조선에 매년 쌀 200만 석, 강재 10만 톤, 전력 10억 키로 와트시, 화학 섬유 1만 톤과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제공할 것을 결정했다. 쌀 200만 석이면 700만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의 3 개월분 식량을 해결할 수 있고 강재 10만 톤이면 남조선의 년간 강재 소요량의 3 분의 2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기 10억 키로 와트시이면 현재 남조선의 조건 하에서 동력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화학 섬유 1만 톤이면 현재 남조선에서 해마다 수입해 와야 하는 화학 섬유 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싸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4, 19 용사들이여! 때는 왔다. 4월의 광장에 폭풍을 일으키라.

이미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제의를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이러한 동포애적 손'길이 가 닿지 못했고 그대들은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도 그를 받지 못했는가! 이 아니 통분할 노릇인가! 그러나 지금은 통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상의 그 모든 악마들과 하늘에 드리운 검은 구름'장들이 타버리고 산산쪼각이 날 때까지 반미, 반일 구국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라!

경험은 각계 각층 인민들이 하나로 뭉쳐 거족적으로 일어나 싸울 때 그 어떤 제국주의 아성도, 폭군도 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계속 완강히 싸우라!

그리고 어서 남북이 손을 잡자! 통일의 문을 열자!

그 날에 제주도 한라산에까지 란만히 찾아 들 새 봄, 얼마나 화창할 것인가.

100여 만의 류랑 걸식아들은 물론 구두 닦기 소년들과 식모살이 소녀들도 모두들 책보 끼고 학교로 갈 것이니 그들의 얼굴에 피는 꽃 얼마나 고울 것인가! 수십만의 고학생들도 모두가 국가 장학금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가재를 통털어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도 자기 전공에 따르는 보람찬 일터와 연구의 터전이 제공될 것이다. 아니 남녘의 모든 사람들이 풍만한 봄'빛 아래 비단수와 같은 꽃동산을 가꾸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래일의 현실이다. 그 날을 앞당기자.

밥 달라고 발버둥치는 어린 자식의 목을 조르고 자살을 기도한 영등포의 그 어머니에게, 공납금을 못 물어 래일은 학교에서 쫓겨 나야 하는 부산의 그 중고등 학생에게, 사경에 이른 어머니의 치료비를 얻기 위해 몸을 팔겠다는 대구의 그 처녀에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눈을 사 달라고 종합 병원의 문짝을 두드리는 서울의 그 로동자에게, 언 땅에서 풀뿌리를 캐다가 죽어 간 딸자식을 부여 안고 목 놓아 우는 덕남'벌의 그 농민에게 어찌 하루 한 시가 새롭지 않겠는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여!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는 매우 절박하다. 그 어떤 관망도, 유예도 금물이다.

모두가 그 대로 폭풍이 되여 4월의 광장을 누벼 가라!

미제도, 일제도 모조리 쓸어서 남해에 처넣으라! 박 정희 도당을 짓부시라!



혁명은 파도와 같다

박 우섭

내가 1937년 북만의 요하현에서 공청원의 영예를 지니고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대오에 참가한 때로부터 어느덧 30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 가도 나는 그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나는 이 글에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간고한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청년들의 공산주의 수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가 생각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적으려 한다.

인간은 난관과의 투쟁 속에서 단련되여야 한다

나는 나의 동지들과 또한 나 자신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 것이 아니라 폭풍 휘몰아치는 산마루의 소나무처럼 씩씩하고 힘차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과 비'바람을 모르고 그늘 밑에서 자라난 풀이나 나무에 비하여 온갖 풍상을 겪으며 자란 산마루의 소나무들은 얼마나 힘차고 믿음직하고 무게가 있는가!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투사로 자라나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인간은 난관과 시련이 없이, 준엄한 투쟁의 학교를 거침이 없이 혁명 전사로 성장할 수 없다.

나는 이 진리를 오랜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매우 절절히 느꼈다. 나의 눈앞에는 지금도 나의 어린 시절의 나날이며 손에 총을 잡고 유격대에 입대하던 날이 선하게 떠오른다.

나의 어린 시절은 땅을 떼우고 쫓겨서 고향(현재의 함남 단천 지방)을 등진 아버지를 따라 머나먼 이국 땅인 원동과 북만 지방에서 흘렀다.

나는 여덟 살 때부터 토호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다. 집이 어찌도 가난했던지 나의 형도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고 열 한 살 난 누이도 민며느리로 팔려 갔었다. 지어는 다섯 살짜리 어린 누이 동생까지도 온갖 천대를 받아 가며 어느 부자'집에 가서 아이를 봐 주고 먹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었다.

바로 이렇게 온 가족이 고통과 설음을 겪던 어느 해 나의 누이는 끝내 중병에 걸려 약 한 첩 못 써 보고 열 다섯 꽃나이에 원통하게도 숨을 걷우고 말았다.

나는 누이의 이 엄혹한 죽음을 두고 슬피 울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일 안 하고도 잘 사는 자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집은 온 식구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한뉘 못 사는지 그 리유를 알 수 없었다.

내가 열 네 살에 나던 해부터 우리 가족은 북만의 요하 근방 다배성 부락에서 살게 되였다. 여기에는 이미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공청, 반일회, 아동단 등 각종 혁명 조직들이 조직되여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아동단 생활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모임에도 다녔고 통신 련락도 다녔다. 내가 계급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나는 우리가 자기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이국 땅에까지 쫓겨 와서도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강점했기 때문이며 지주와 자본가놈들이 로동자, 농민을 착취하기 때문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 후부터 나는 길'가에서나 마을에서 왜놈들이나 지주들을 보기만 하면 눈에서 불이 펄펄 이는 듯 미웠다.

그러던 중 한 변절자의 밀고로 그만 우리 부락의 혁명 조직이 폭로되였다. 경찰과 헌병놈들이 들이 닥치고 마을에는 검거 선풍이 일었다. 그 바람에 나 역시 놈들의 헌병대에 끌리워 가게 되였다. 놈들은 어린 나에게서 조직의 비밀을 알아 내려고 별라별 고문을 다 했다. 그러나 나는 살이 찢기고 정신을 잃을지언정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원쑤들은 일 주일만에 나를 석방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손에 총을 잡고 일제를 격멸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더우기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신다는 소식은 나의 젊은 피를 끓어 번지게 하였다.

1936년 봄의 어느 날이였었다. 나는 그 날도 지주놈의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찬 밥을 한 술 떠 먹고 나왔는지라 너무도 허기가 져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나는 숲이 우거진 먼 산마루를 바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산너머 어디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항일 유격대원들이 원쑤들을 족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나의 가슴엔 어서 빨리 항일 유격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나는 항일 유격대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지방 조직을 거치지도 못 하고 유격대를 찾아 떠났으니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다. 나는 현 사흘이나 산 중에서 혼자 고생하다가 집으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결국 나는 그 이듬해 7월에야 한 지방 정치 공작원의 안내로 유격대에 정식으로 입대할 수 있었다. 그 때의 기쁨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나래라도 있으면 훨훨 날으고 싶은 그런 심정이였다.

혁명 대오에서 어엿한 혁명 전사로 자라 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우여 곡절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지금도 유격대 생활의 초기에 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어느날 나는 중대에서 첫 무기를 받았다. 그것은 매우 낡은 보총이였다. 중대 정치 지도원 황 대하 동무는 그 총을 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섭 동무! 이 총은 1930 년대의 초기부터 왜놈들을 쏘아 눕히던 전통 있는 무기요. 이 총에는 수 많은 혁명 선배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소. 눈'동자처럼 이 총을 사랑하면서 원쑤놈들을 더 많이 쓰러눕혀야 하겠소.》

첫 무기를 받은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며칠 후 나는 첫 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다. 우리가 차지한 언덕을 향하여 왜놈들이 새'까맣게 밀려 오고 있었다. 우리는 사기 충천하여 놈들을 맞받아 돌격해 나갔다. 그런데 나는 이 때 받은 탄알을 확인도 함이 없이 적개심에 불탄 나머지 그냥 달려 나갔다.

적아 간의 거리가 점점 좁아 들고 짐승 같은 원쑤들의 상판대기들이 눈앞에 다가 왔다. 나는 앞으로 달려 나가면서 놈들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격발기가 그저 《철커덕》하고 소리를 내였을 뿐 탄알은 나가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방아쇠를 당겼다. 역시 불발이였다. 나의 마음은 조급해 났다. 적들은 아득바득 기여 들고 나의 몸에서는 진땀이 솟았다. 나는 이 날 겨우 여섯 발만에야 첫 총탄을 발사할 수 있었다.

만약 이 때 나의 곁에 있는 동지들이 나를 겨누고 덤벼 드는 원쑤놈들을 제때에 쏘아 눕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그것은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쳐지는 일이였었다.

이 날 전투 총화에서 나는 동지들로부터 응당한 비판을 받았다. 나는 그 날 밤 깊은 탕심

의 가책에 모대기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항상 무기를 귀중히 다루었으며 전투에서는 언제나 남에게 뒤질세라 앞장에 섰다. 그리고 짬이 있을 때마다 맹렬하게 사격 연습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드디여 나의 사격 솜씨를 떨치게 된 날이 왔다. 1938년 여름 어느 날 우리는 흘러허로 왜놈들의 장교단들이 탄 배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안에 매복하고 있었다. 흘러허의 강물은 여름의 해'볕을 받으며 유유히 흘러 내리고 있었다. 한낮이 지났을 때 과연 커다란 한 척의 배가 강 우에 나타났다. 배는 으리으리하게 무장되여 있었다. 기관선 꼭대기에 3 문의 경기와 한 문의 중기가 언제나 사격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좀 지휘관인듯한 놈이 한쪽 옆구리에 긴 칼을 드리우고 서서 망원경으로 이쪽저쪽을 살펴 보고 있었다.

그 놈을 보는 나의 가슴은 증오로 타번졌다. (바로 저 놈의 군도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 형제들의 피가 물들어 있을 것인가! 저 놈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쓰러눕혀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슴을 옥죄였다.

드디여 지휘부에서 사격 신호가 내렸다. 최민철 동무의 경기가 먼저 그 놈에게 명중탄을 안겼다. 그러자 그 놈은 손에서 망원경을 떨어뜨리며 허공을 그러안더니 흘러허의 푸른 물 우에 처절썩 나떨어졌다. 우리는 련속 놈들에게 맹사격을 담아 부었다. 이윽고 옆구리가 뚫린 배는 서서히 물 속에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장교놈들은 배 밑에서 기여 나와 출렁출렁 물 우에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는 맞은편 강안을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하였다. 최후 발악으로 살아 보자는 심산이였다. 나는 그 중 한 놈을 조척 400을 놓고 질끈 잡겼다.

《아주 잘 쐈소, 명중이요.》

이런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서 돌아다 보니 어느새 황 태하 정치 지도원 동무가 와서 서 있었다.

《저 쪽에도 헤엄치는 놈이 또 있소.》

정치 지도원 동무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파렴 한 놈의 머리가 물 우에 떴다 가라 앉았다 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척 500을 놓고 그 놈의 머리가 물 우에 솟아 오르는 순간 재빨리 방아쇠를 당겼다. 그 놈은 다시 떠오르지 못 했다. 또 한 놈이 보였다. 나는 그 놈을 600 메터 거리에서 맞혔고 그 다음 놈을 700 메터 거리에서 맞혔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수십 명에 달하는 왜놈 장교들을 몰살시켰다. 후에 들은 바이지만 이 날 전투에서 살아 남은 놈은 오직 몸에 부상을 입고 도망친 한 놈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날 전투 총화 때 나는 직접 이 전투를 지휘한 최 용건 동지의 표창을 받았다. 황 태하 정치 지도원은 나의 손을 잡고 여간만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이렇게 말했다.

《우섭 동무! 정말 동무의 사격 솜씨는 놀랍소. 물론 총은 그 때 총이 아니지만 나는 동무가 첫 전투에서 헛총질만 하던 일이 생각 나오. 동무가 자신의 결함을 제때에 고쳤기 때문이였소.》

나는 그만 얼굴이 화끈하여 고개를 들지 못 했다.

그 후 나는 적 300여 명을 살상한 별훈 전투, 170여 정의 보총과 2 정의 경기를 로획한 포수궁 전투, 적 한 개 대대를 몽땅 녹여 낸 치싱허 전투 등 수십 차례에 걸치는 전투들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의 나날은 나를 더욱 억세게 키워 주었고 단련시켰다. 나는 투쟁과 시련들을 걸쳐 1939년 공산당원의 영예를 지녔다.

젊은 동무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투사로서의 품격은 투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지난날 아무런 시련과 투쟁도 없이 고이 자라난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실제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보았다.

나와 함께 유격대에 입대한 한 청년은 유격대에 입대한 초기에 벌써 곤난과 희생 앞에 겁을 집어 먹고 원수들 편으로 도주하려다가 적발되였다. 세상의 풍파를 모르고 온실 속에서 고이 자라난 그는 모진 폭풍의 시련 앞에 견디여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난관과 투쟁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받아 용감히 뚫고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만이 진정한 투사에로의 길이 있는 것이다.

혁명은 파도와 같다

혁명의 길은 평탄하지 않으며 간고하고도 험난하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실패도 하였으며 때로는 불가피한 퇴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락심하지 않았으며 동요함이 없이 계속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나는 지금도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소부대 및 소조 활동 시기를 자주 회상하게 된다.

당시 일제는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에서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후방 숙청》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였다. 만일 조선과 만주에서의 《안전》을 기하지 못 할 때 일제는 반쏘 전쟁과 태평양 침략 전쟁에서 자기들의 뒤통수를 얻어 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세한 무장을 가진 20여 만의 정예 부대를 항일 유격대에 대한 토벌에 계속 투입하였다.

놈들은 《집단 부락 정책》과 《삼광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봉쇄》도 강화하였다. 우리는 그 때 한 끼의 식사, 몇 가치의 성냥을 해결하는 데도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만 할 형편이였다.

그러나 이렇게 간고한 나날에도 항일 빨찌산들은 김 일성 동지의 소부대 활동 방침을 받들고 광활한 지역들에서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여 일제 군경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리 불리한 정황과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결코 락망하거나 동요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들이 1943년 가을 북만의 흑하성과 북안성 일대에서 소조 활동을 하던 때의 일이다. 그 때 우리 일행은 셋이였었다. 가을이라 하지만 북만의 기후는 몹시 추웠다. 밤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강에는 살얼음이 두텁게 깔리군 하였다. 적의 《토벌대》 놈들은 사면에서 욱실거리고 있었다.

그 때 우리의 임무는 쏘만 국경 지대에 배치된 일제 군경들의 배치 정형을 탐지하는 일이였다. 그런데 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리는 굴빈허 근처에서 적 《토벌》부대놈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놈들은 우리가 몇과 세 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생포》하려고 추격해 왔다. 우리는 응근 사흘이나 적들의 집요한 추격을 받았다.

이런 형편에서 언제나 놈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수세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놈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놈들을 족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적당한 지형을 선택하여 매복하였다. 그리고는 다가 오는 놈들을 향하여 불공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적아 간의 전투는 더욱 치렬해 갔다. 적탄은 우리의 앞뒤에 비'발처럼 날아 왔다. 우리 셋 중에서 한 동무가 그만 적탄에 가슴을 맞았다. 그는 피 흐르는 가슴을 움켜 쥐고 땅 우에 쓰러졌다. 나는 그에게로 기여 가 붕대를 감아 준 후 다시 밀려 오는 원수놈들을 쏘았다. 갑자기 눈에서 불이 번쩍 일고 정신이 아찔하였다. 적탄에 머리를 부상 당했던 것이다.

피가 자꾸만 눈으로 흘러 들고 다리가 아래로 수그러지였다. 그러나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원수놈들을 계속 쏘아 눕혔다. 어둠이 깃들자 적들은 더는 다가 들지 못 했다.

전투가 끝난 후 우리들은 다시 굴빈허 쪽으로 빠졌다. 결국 셋 중에서 두 명이 부상 당했다. 우리는 가슴에 적탄을 맞은 동무를 복판에 세우고 량 옆에서 그를 부축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간신히 걸음을 옮겨 나갔다.

깊은 숲 속에 들어 간 우리는 일단 그 곳에서 휴식하기로 하였다. 식량이라군 한 알도 없었다. 풀뿌리를 들추어 연명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얼굴이 퉁퉁 부어 오르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흘렀다. 우리가 이러할진대 가슴에 중상을 입은 동무야 얼마나 괴로우랴!

우리는 맥 없는 다리를 끄을면서 높은 잣나무에 기여 올라 가서는 몇 송이 씩의 잣을 따다가 잣죽을 쑤어 그의 입에 흘려 넣군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극진히 간호한 보람

도 없이 그는 부상 당한 14일만에 끝내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최후 승리를 보지 못한 채 희생되고 말았다. 원쑤들에게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우리의 가슴은 증오와 비분으로 떠지는듯 하였다.

이리하여 북만의 깊은 수림 속에 우리는 오직 두 사람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비관하지 않았다.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그 날 밤, 나는 숲 속에 번듯이 누워 나무 사이로 쳐다보이는 하늘을 보고 있었다. 은하수가 남북으로 길게 흐르고 있었다.

차거운 바람이 몰려 와 온 몸을 바늘로 쿡쿡 찌르는듯 하였다.

나에게는 유격대에 입대한 후의 보람찬 나날들이 떠 올랐다. 마상에 높이 앉아 우쭐거리는 적들의 진중으로 뛰여 들어 좌우로 접어드는 놈들을 통쾌하게 찔러 눕히던 기병 부대에서의 나날들이며 적들이 둥지 튼 싸즈별허 목재소를 치고 수백 명의 로동자들을 해방시킨 어느 해의 5.1절이며 목단강 일대에서 적들의 군수 렬차를 전복시키던 일들이 선하게 떠 올랐다. 정말이지 그 때 우리의 기세는 얼마나 충천했던가!

그런가 하면 1940년 가을부터 소부대 공작을 진행한 이 후에 있은 고난에 찬 나날들도 회상되였다.

그렇다! 혁명이란 파도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최후 승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고한 투쟁을 거쳐서야만 쟁취되는 것이다. 어찌 이만한 곤난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자 또 가 봅시다.》

나는 나의 동무를 고무하며 움쭉 일어 섰다. 숲'가에 나오니 저 멀리 대도로로는 놈들의 포차들이며 땅크들이 밤새도록 쏘만 국경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놈들을 노려 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네놈들이 오늘은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만 너희들의 멸망은 벌써 불가피한 것이다. 멀지 않아 네놈들은 망하고 우리 조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새날은 동터 오리라!)

여기하여 우리는 말 못할 악전 고투를 겪으면서 끝내나 지휘부에서 맡은 소조 공작 임무를 성과적으로 끝마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우리들이 믿은 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하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난관과 희생도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볼 줄 모르는 자는 승리의 신심을 가지지 못 하였으며 중도에서 투쟁을 포기하였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들 가운데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당면한 곤난을 극복 못하여 10여 년간의 고귀한 자기의 혁명 력사를 더럽히고 적 앞에 투항변절한 비렬한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비겁한 자들은 참으로 가련한 자들이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기껏해야 60년 전후가 아닌가! 때문에 예로부터 《인간 70 고래희》라는 말이 있다. 이 길지 않은 생애를 깨끗이 살지 못 하고 목전의 조그마한 리익을 위하여 자기 량심을 팔고 조국과 인민을 반역한 비겁분자들을 어찌 가련하다 아니하겠는가!

…최후까지 웃는 자라야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혁명적 량심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들의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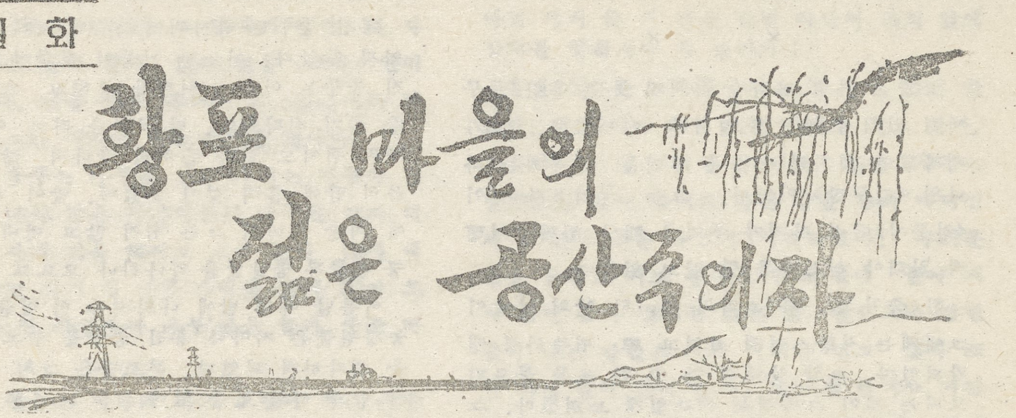
그 이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지났건만 헤아릴 수 없이 높은 그 뜻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얼마나 힘 있게 울리는 것인가!

청년들은 혁명적 락관주의 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혁명적 지조를 굳굳이 지키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실화

황포 마을의 젊은 공산주의자



—기술 학교를 졸업하고 장풍군 림강 협동 농장에 진출한 민청원 김 홍진 동무에 대한 이야기 —

기술 학교를 졸업한 민청원 김 홍진 동무가 당의 부름을 심장 속 깊이에 간직하고 사회주의 농촌에 진출한 지 1년이 된다. 이 1년을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일했기에 농장 사람들로부터 《마을의 젊은 공산주의자》라고 불리우게 되였는가? 그는 과연 어떤 청년인가?

× × ×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구화 농업 학교 졸업반의 한 교실에서는 흥분을 감출 줄 모르는 학생들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한 학생이 말했다.

《나는 상급 학교에 가기로 했어. 더 배워야 하니까!》

다른 학생이 받았다.

《나는 공장에 진출해서 일하면서 공대 통신 학부를 다닐테야. 이런 산'골에선 발전이 없어, 그래도 청년으로서 좀 무얼 본때 있게 해야 혁명 시대에 사는 맛이 나지.》

이 때 홍진 동무만은 묵묵히 입을 다문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웬 일인지 그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이다.

…아홉 살 나던 해에 부모들과 함께 불바다로 된 마을을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던 일이며, 전쟁의 불'길이 멎은 후에 다시 고향 사람들이 재'무지 속에서 새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던 모습들…그러자 홍진 동무는 새삼스럽게 나서 자란 고향 마을이 눈앞에 가까이 보여 왔고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고향의 부름 소리가 들려 오는 것만 같았다.

그 땅을 두고 그 어디건 다른 데로는 결코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고향 땅을 락원으로 꾸리는 일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홍진 동문 어디로? 물론 어느 고등 기술 학교로 갈테지?》

학창 시절을 내내 최우등으로 보낸 홍진 동무였다. 입'버릇처럼 력사학 학자가 되겠노라고 말했고 또 그런 지향의 길에 정력을 바쳐 온 홍진 동무였다.

그러나 홍진 동무는 이 순간 동무들을 저으기 놀래운 대답을 하였다.

《난 우리 마을 농장으로 나갈 작정이야. 농장에 나가서 한 번 본때 있게 일해 볼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내가 할려구 하는 그 일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혁명 사업인것만 같애!》

홍진 동무에게는 정말 고향의 번영과 고향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일에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데 또 있으랴 싶었다.

상급 학교로 올라 갈 추천서를 바치고 림강 협동 농장으로 배치장을 안고 걸음을 다우치던 홍진 동무에게는 그 때 그 배치장이 그 어떤 전투 명령서와도 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그렇게 첫 전투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 ×

농장은 아직 애티를 가시지 못한 홍진 동무에게 있어서 단순한 일터가 아니였다.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농장은 자연을 정복하는 하나의 《전투장》이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전투장》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줌의 흙, 한 오리의 짚, 한 알의 낟알이 그에게는 사랑스럽게 보였고 또 귀중하게 생각되였다. 고향 앞에서 한 분 한 초를 무료히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농장에 나온 그 첫날부터 자기의 모든 생활을 로동 시간으로, 학습 시간으로 삼았다. 그는 모든 일의 앞장에 섰고 남의 일을 제일처럼 발벗고 거들어 주었다.

가을걷이에 바쁘던 어느 날이였다. 이 날 그들은 산밭에 있는 콩'단을 져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을 끝내였을 때 작업 분조장 동무는 만족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였다.

《오늘은 모두들 열성을 내서 어제보다 1.5 배나 더 능률을 냈소. 아마 우리 분조가 작업 반적으로 제일 앞섰을 거요.》

이 말을 듣자 홍진 동무의 얼굴은 확 달아올랐다.

(분조 단위로 작업량을 나누었던 첫날 작업에선 계획도 빠듯하게 하였는데 어째서 개별적인 책임량을 정해 준 오늘 작업은 어제보다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 갔을가?)

홍진 동무는 첫날이나 다음 날이나 당실껏 일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인데도 어찌하여 개인 별로 작업량을 장악하지 않은 첫날 작업과 개인 도급을 한 다음날 작업에서 심한 차이를 보게 되였을가?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것이 비록 부분적인 현상이라 하여도 절코 그 대로 스쳐 버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작업 총화가 끝나자 모두들 집으로들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다시 산밭으로 걸음을 옮겼다. 밭에 온 그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의 콩'단들과 한 자리에 무둑히 쌓아 두었던 곳의 콩'단들은 다 날랐지만 먼 곳의 것들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지 않는가! 더욱 그의 가슴을 찌른 것은 길'가

에 흩어진 콩'단 부스러기들과 콩알들이였다.

홍진 동무는 한자리에 선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어 왔다. 홍진 동무는 이윽고 허리를 굽히고 그 모든 것을 줍기 시작했다. 발'이랑을 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여도 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온몸이 땀에 흠백 젖어 들었다. 달이 산'등성이에 기울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내내 흩어진 콩'단들과 콩알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밭에 나와서야 이 일을 알게 된 농장원들은 저마다 홍진 동무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분조장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이런 말을 했다.

《홍진 동무, 회의에서 열 번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어서 고맙소.》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자기의 로력 점수만 앞세워 오던 몇몇 농장원들의 일솜씨가 달라졌다. 모두가 검불 하나를 제것처럼 아끼고 집단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였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홍진 동무는 농장원들이 달구지를 다 쓰고 멍에채가 땅에 닿도록 내버려 둔 것을 보았다. 사실 사람들은 멍에채가 비'물에 젖거나 찬서리를 맞으면 다루기 불편하고 오래 가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멍에채에 대해서 관심하는 이는 그리 많지 못했다. 그는 그 즉시로 집에 가서 연장이며 벼'짚단들을 메 왔다. 그것으로 달구지 멍에가 땅에 닿지 않게 고임'대를 만들어 받쳐 놓았고 이영까지 엮어 덮어 놓았다.

이것을 목격하고 간 한 농장원 아바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 하면서 홍진 동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나 내나 몇 십년을 농사로 늙었구 또 8 년 간이나 소 관리공을 해 오네만 홍진이 한테서 배워야 하겠네. 그 녀석의 그 마음씨를 배워야 하겠단 말이야!》

벼가을 때 한 번은 유 애자 아주머니가 무딘 낫으로 땀을 빼며 벼를 베고 있었다. 아주머니에겐 예비 낫도 없었다. 그를 본 홍진 동무는 《아주머니 그걸 일 주세요!》하고 아주머니한테서 낫을 받아 자기 망태기 안에 넣고는 새파랗게 날이 선 다른 낫을 꺼내 그의 손에 쥐여 주었다. 아주머니는 가슴이 후더워 말을 잇지 못 했다. 한것은 그 망태기 안에 열 자루도 넘는 낮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아서만이 아니였다. 남을 위해 애쓰는 그 믿음직한 마음씨에 그만 머리가 수그러졌던 것이다.

홍진 동무는 나무를 하러 가서는 아무리 저물어도 나이 많은 아바이들의 나무를 먼저 해주고야 자기 것을 해지고 오며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자기 집 나무'가리를 헐어 30여 호나 되는 집 부엌마다 나무'단을 들여 주군 하였다.

홍진 동무는 이렇게 자기 고향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나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뚫고 나가는 동무이다.

여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한다.

지난해 장마 때였다. 억 사흘을 퍼붓던 비가 하루는 더 사납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홍진 동무는 초조하였다. 마을 앞 개울이 불어나 논밭으로 쓸어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홍진 동무는 깊은 밤 비'바람 속을 뚫고 들로 나가 논밭을 돌아 보았다. 불어 난 물은 사정 없이 보'둑을 허물며 들고 있었다. 물은 그야말로 무서운 기세로 끊임 없이 흘러 들었다.

홍진 동무는 물참봉이 되여 등에다가 돌을 지고 두 팔로는 한아름이나 되는 돌을 부여안고 물을 건너 왔다간 또 헤염쳐 건너 가군 하였다. 번개'불이 번쩍번쩍할 때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불사신과도 같이 보였다. 한군데를 막고 나면 새로운 물'결이 또 다른 데를 위협하군 하였다.

마을에 알리려니 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었다. 바로 이 때 몇 배나 더 사나운 물사태가 밀려 들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강물을 건너 가면 맞은편 둔덕 우에 재'단이며 돌이 있다. 그것을 가져다 위험한 데를 막으면 될 것 같다. 그러나 물'결은 무서운 기세로 소용돌이 친다. 이 분초를 다투는 시각에 홍진 동무는 한 줌의 흙을 배낭 속에 간직하고 다닌 항일 투사들이 생각 났다. 그처럼 피로써 싸워 지켜 준 이 땅을 한낱 자연의 조화 앞에 상처를 입혀서야 될 말인가!

홍진 동무는 소용돌이치는 물 속에 뛰여 들었다. 물은 사정 없이 그를 아래로 끌고 갔다. 간신히 건너편 기슭에 가 닿은 홍진 동무는 빈몸으로 해여 가기도 바쁜 강을 건너 다니면서 재'단과 돌을 나르기 시작하였다. 무거운 돌을 등에도 지고 팔에도 안고 물에 들어 서니 물에 몸이 밀리는 것은 좀 덜했으나 점점 불어 나는 강물은 그의 어깨를 넘고 얼굴 로로 사정 없이 들어 갔다. 그는 몇 번이고 거진 해서 쓰러졌다가는 또 일어 나서 강을 건너 가군 하였다. 그러다가 종래 그는 보'둑이 터진 곳에 돌과 함께 자기 몸을 덮고 쓰러졌다.

이러한 때 홰'불을 켜 들고 강'가로 달려 나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였다.

《아, 홍진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정신을 차린 홍진 동무는

《보'둑이 위험해요, 보'둑이…》하면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걱정 말라구…모두 달려 나왔대…》

홍진 동무의 숭고한 행동에 감동된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삼키며 강물과 싸워 이겼다.

기승을 부리던 홍수도 고향 마을을 지켜 나선 홍진 동무와 마을 사람들의 굴함 없는 정신 앞에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이 날 이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15 정보나 되는 마을의 기름진 논이 홍수의 피해를 면하였다.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이 보'둑 우를 오갈 때마다 그 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마을의 자랑으로 돌이켜 보군 한다.

× ×

자기가 사는 마을을 문화적인 마을로 꾸리려는 생각은 홍진 동무가 협동 농장에 첫 발을 들여 놓을 때부터 한시도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청 해서 근로자 학교 강사로 되였다. 10여 명의 학생 밖에 안 되니 별로 어려울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과 같이 일하

면서 해 내자니 곤난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여 주는 일은 우리의 혁명 위업과 련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당의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이악하게 달라 붙어 자기 임무를 수행하였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래도 다들 열성스레 참가했는데 며칠 지나서부터는 한 사람 두 사람 결석하는 정도가 잦아 가는 것이였다.

(혹시 내가 강의를 잘못 해서 그러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한 홍진 동무는 리해하기 쉽게 괘도도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장을 거두어다가 밤을 밝혀 가며 수준과 정도에 맞게 학습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출석률이 낮았다. 결석자를 분석해 본 홍진 동무는 그 대부분이 아이 어머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민청원들의 도움을 받아 결석을 자주 하는 집들의 일'손을 도와 주기 시작했다. 그는 궂은날 진날 가리지 않고 집집을 찾아 다니면서 어린 아이를 업어다 주는 일까지 도와 주었다. 그 후부터는 누구도 근로자 학교에 빠지는 학생이 없게 되였다.

홍진 동무는 허구헌날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도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물이 불어 났을 때 내'가에 지켜 섰다가 학교에 가는 어린 학생들을 업어 건너 주군 하는 일이며 민청원들과 같이 마을의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을 꾸리고 우물을 개조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 가운데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겨울 눈이 무릎을 치게 내린 어느날이였다. 새벽에 잠에서 깨여 난 홍진 동무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학교 갈 때 아이들이 눈에 빠지겠구나)

그 바쁜 짬에도 어린 학생들의 방학 간 생활을 도맡아 돌봐 주던 홍진 동무였기에 어린 학생들이 하루라도 공부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홍진 동무는 그 대로 넉가래를 휘두르며 학교 가는 5 리 고개'길에 덮인 눈을 쳐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홍진 동무는 흐르는 땀과 불어치는 눈보라로 해서 온통 눈범벅이 되였다. 그러나 그는 힘든 줄을 몰랐다. 그가 5 리'길의 눈을 다 치우고 고개'마루에 올랐을 때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 소리가 가까와 왔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빠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홍진 동무를 보자 그에게 매달렸다.

《빨리 학교에 가라구, 늦어서는 안 돼.》

그는 고개'마루에 서서 저 멀리 산 아래로 멀어지는 아이들을 바라 보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더 없는 보람을 느끼였다.

홍진 동무는 오늘도 농장의 젊은 역군으로 자기의 《전투장》에서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요즈음에 와서 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학습하면서 새로운 흥분 속에서 자기의 고향 마을을 바라 보고 있다.

그의 1 년은 이렇게 지나 갔다. 이제 앞으로 올 그 많은 해와 해가 바뀌면 그는 얼마나 더 붉고 붉은 시대의 꽃으로 피여 날 것인가?

본사 기자 한 현준

맑스-레닌주의에서 농촌 문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강 훈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많은 새로운 리론적 문제들이 제시되였으며 그것들이 심오하게 해명되여 있다.

테제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이 리론적으로 개괄되였으며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전망과 그 실현 원칙들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였다.

우리가 테제에서 천명된 리론적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맑스-레닌주의 리론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인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리면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였으며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였다.

그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혁명 발전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중요한 전략적 문제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혁명의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혁명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이며 혁명의 기본 동력을 꾸리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 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농민들과 손을 잡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민은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하는 계급으로서 지배 계급에 의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은 오직 혁명적인 로동 계급을 자기의 전위대로, 령도자로 내세움으로써만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십분 가능한 것이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인도하며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경리는 인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을 보장하며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한다.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공업 자체와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전반을 발전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특히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과거에 제국주의 식민지 하에 있었거나 의연히 그의 예속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락후하고 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 나라들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로동 계급과 함께 혁명에서 주력 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혁명에서 농민들의 리해 관계를 옳게 타산하며 그들을 투쟁에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리하여 락후한 나라에서는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이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면 **농민 문제, 농업 문제란 어떤 것이며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맑스-레닌주의에서 농민 문제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로동 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이며 수백만 농민 대중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인도하는 문제이다.

농업 문제란: 농업 생산력을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농촌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공업의 발전 수준에 농업을 따라 세움으로써 공업과 농업 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다.

따라서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농촌에서 온갖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청산하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농촌 문제는 혁명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한 내용을 가지고 제기된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는 것 즉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 개혁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되게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제반 민주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실현하였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로 개조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농촌 경리를 협동화하여야만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 생산력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실물 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조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농촌에서 협동화가 승리한 다음에도 계속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계급적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물질 기술적으로 약하며 농민들은 문화 수준에서도 로동 계급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사상 의식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도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락후한 농촌을 그 대로 두고서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에로 나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락후한 농촌을 그 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 제도를 계속 공고 발전시킬 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종국적 해결은 농촌에서 토지 혁명을 하고 농업을 협동화하는 것으로써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 문제와 농업 문제가 어떻게 나서는가?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부단히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 농촌을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이미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이후 농촌과 도시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소멸할 데 대한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그것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여 농업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의 수준에로 부단히 높이며,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 관계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여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로 점차적으로 접근시키며, 문화 혁명 특히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농민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였을 뿐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체적 방도를 찾아 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대의 공산주의자들과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 앞에 부과된 력사적 임무이다.

우리 당은 협동화 후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에서 극히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농촌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으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방도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금번 테제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농업 협동화 이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세째로,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까지 계속 접근시키며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는 문제들이다.

테제는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심오한 리론적 해명을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테제에서 제기한 이 길만이 우리 나라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담보로 된다.

농업 협동화 이후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박 연 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농업 협동화 이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할 데 대한 문제를 천명하시였다.

그러면 협동화 이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우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소멸함으로써 로농 동맹을 부단히 강화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움으로써만 공업 자체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농민들의 열성과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자체가 광범한 근로 대중의 창조적인 사업인 만큼 농민들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적극성을 부단히 높이는 문제가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단계에서 토지 문제의 해결이 농민들의 생산적 열의를 높인 것을 알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다시 한 번 농민들의 열의를 제고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앙양된 농민들의 열의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화가 되였다고 주저 앉을 것이 아니라 계속 혁명을 하여야 한다.

만일 협동화가 완성되였다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앙양된 농민들의 열의를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협동화 이후에도 혁명은 계속 견지되여야 한다.

그러면 협동화 이후에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농민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들을 문화적 락후성과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해방시키는 문제들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는 이미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그의 일반적 사상이 천명되였다. 그러나 협동화 이후 사회주의 농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도는 계속 해명을 요하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

금번 테제에서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과 이 세 가지 혁명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러면 농촌에서 협동화 이후 계속 수행해야 할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란 어떤 것인가?

기술 혁명이란 농촌 경리를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 과학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여 농업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화 혁명이란 농민들의 일반 지식과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에서 일할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 혁명이란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혁명 과업은 어떤 원칙에서 수행하여야 하는가?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세 가지 혁명의 수행 원칙은;

우선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반드시 통일적 과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하는 원칙이다.

그것은 세 가지 혁명 과업이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따라서 통일적으로 진행될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례컨대 농촌에서 기술 혁명은 농민들 속에서의 일반 지식 수준이 높을 때 잘 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중학교 정도로 제고하자는 리유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에 농촌 기술 혁명은 농민들의 기술 문화 및 사상 의식 수준 제고에 영향을 준다.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은 기술 혁명의 중요한 전제로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 속에서 사상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일정한 문화 수준이 없이 사상 의식에서의 급격한 변화란 기대할 수 없으며 반대로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들을 개변함이 없이는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은 호상 밀접한 련관 속에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혁명은 항상 병행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상 혁명을 다른 혁명들에 선행시키는 원칙이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시켜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농촌에서 계급 투쟁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된다.

협동화 이후에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 분자들과 농촌에서 이미 전복된 잔여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은 계속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은 계속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 계급적 각성을 높이며 사상 혁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농촌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다.

둘째로, 농민들의 자각적 열의를 계속 고조에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

성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람들에게 달린 문제들이다. 사람들의 의식이 높고 열의가 앙양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 공고하게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 속에서 사상 혁명을 선행하여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만 사회주의 농업 제도를 계속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 농촌의 본질적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킬 수 있다.

세째로,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 깊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의식의 개조는 항상 물질적 토대의 축성, 주의 환경, 생활 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진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축성되였다고 하여,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였다고 하여 사람들의 의식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에 상응하게 개변되거나 공산주의 사상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매개 나라들은 례외 없이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모든 사업에 그것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만일 사상 혁명을 등한히 하고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일면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농민들 속에서 개인 리기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제도가 좋고 훌륭한 기계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농사가 잘 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 농업 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오늘 어떤 나라에서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일면에만 치우치고 사상 혁명을 자연 발생적 상태에 방임한 결과 농민들 속에서는 심한 개인 리기주의가 발로되고 있다.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동시에 기술 혁명, 문화 혁명에 대하여도 힘을 돌려야 한다.

사상 혁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에만 치중하고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도 반드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병행시켜야 한다.

그러면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 그 자체의 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살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하는바 그것은 바로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촉진시킴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해야 새 제도에 맞게 사람들이 일은 헐하게 하면서 더욱 풍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농업 생산을 앙양시키며 농민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이다.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은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상 혁명만 강조하고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때는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미약하고 농민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낮아 농민들이 애를 써도 농업 생산이 응당한 수준에 올라 가지 못할 것이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가 자기의 우월성을 발양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생활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지 못 할 것이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도 제고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 혁명에만 치우치고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을 등한히 하는 경향도 없애야 한다.

우리의 경험은 오직 사상 혁명을 선행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동시에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수행하여 온 우리 당의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기본 내용과 그의 수행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답을 주셨다.

김 일성 동지는 농촌 기술 혁명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공업의 발전 정도와 농촌의 구체적 형편에 따라 선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기술 혁명의 네 가지 기본 과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테제는 농촌 문화 혁명과 사상 혁명의 과업에 대해서도 명백히 하였다.

테제는 농촌 문화 혁명의 과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 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 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테제에는 농촌 사상 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촌 경리를 협동화한 이후 계속 혁명을 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청년생활 소사전

은하계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가?

어두운 밤 하늘에 은 모래를 뿌린 것 같이 보이는 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그 수는 대단히 많아서 육안으로서는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별들을 헤아리기 위하여 별의 밝기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육안으로 보아서 가장 크게 보이는 별들을 1등성이라고 하고 겨우 보일 정도의 아주 작은 별들을 6등성이라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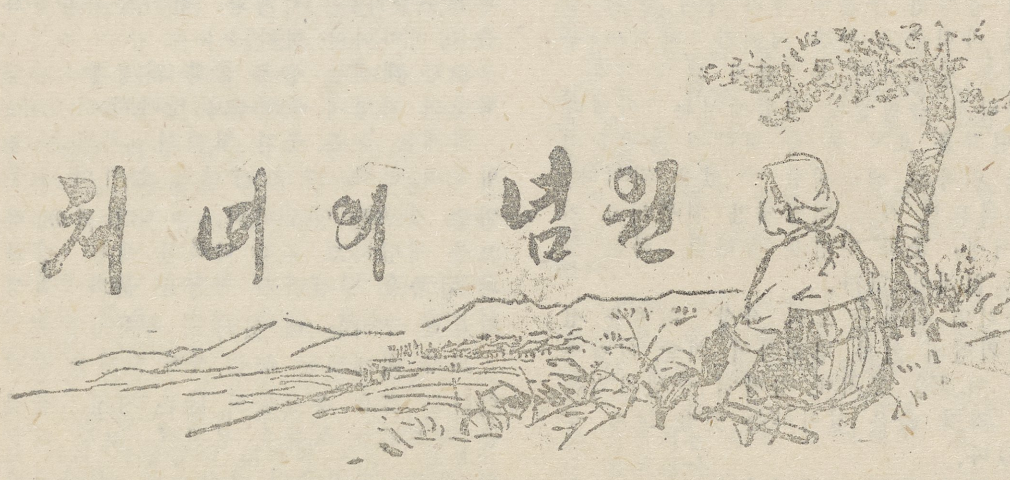
또한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별에도 등급을 붙이여 7등성으로부터 8등성까지 구분되여 있는데 현재 와서 가장 정밀한 망원경으로는 20~21 등성까지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1 등성까지 구분하여 세여 온 별의 총 수는 10억 개에 달한다. 물론 은하계의 끝까지 다 내다 볼 수는 없으나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은하계에는 60등성을 넘는 별들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은하계의 별들을 1등성~60 등성까지 구분하여 놓고 모두 합하여 본다면 약 1천 5백억 개에 달한다.

실화

1956년 민청 제 4 차 대회가 열리던 그 해에 아직 열 네 살 나는 어린 소년단원이였던 량 승옥 동무는 민청 제 5 차 대회를 맞이 하는 오늘에 와서 어엿한 로동당원으로, 240여 세대의 농장을 책임진 관리 위원장으로, 군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자라 났다.

처녀의 념원



그의 꿈은 무엇이였는가?

승옥 동무가 고향 땅인 상원군 귀일리에서 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어린 처녀 시절이였다.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는 삼복의 태양 밑에서 어른들 틈에 끼워서 일하노라면 어느덧 그 통통하고 조그마한 손에는 물'집이 잡히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다.

처녀는 새벽이면 남먼저 밭으로 달려 나왔고 저녁에는 남들이 하다 만 일의 뒤'거두매까지 말끔히 하고는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가군 하였다. 쉴참에도 달려 가서 어른들이 마실 물을 떠 온다던가 밭두렁에서 퇴비장에 처넣을 풀 한 단씩을 베인다던가 하면서 도무지 일'손을 놓지 않았다.

처음엔 그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차츰 이렇게 말하게쯤 되었다.

《고추는 작아도 맵기만 하다고 우리 작업반에 거 착실한 농군이 하나 생겼는 걸…》

그 때 고향 마을에서 첫 일'손을 잡은 어린 승옥이에게는 아직도 그 누구도 모르는 당돌한 꿈이 있었다. 자기 고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였다. 때로 그는 산'등성이 우에 앉아서 정다운 마을을 굽어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하였다.

승옥이가 남달리 고향 땅을 깊이 사랑한 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해방 전 승옥이네 집은 지주'집 머슴과 소작농으로 눈물겨운 생활을 해 왔었다. 그 때의 하많은 고생의 나날을 어찌 다 이야기할 수 있으랴! 승옥이는 어머니가 가끔 그 때 일을 회상하면서 눈물이 글썽해 하던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해방 후 그의 집은 참으로 행복했었다. 1946년 봄 나라로부터 옥토를 분여 받았고 아버지는 리 농맹 위원장으로까지 사업하게 되였다. 그러나 조국의 수난기였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아버지는 그만 원수놈들에게 붙잡혔다가 구사 일생으로 놈들의 마수에서 탈출하기는 했으나 너무도 매를 맞아 병석에 눕게 되였다.

그것은 승옥이가 열 두 살 나던 해였었다. 하루는 그가 학교에서 돌아 오니 그렇게도 병세가 심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가며 뜰에다 매화나무 모목을 심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전 어째 심어요?》

그 때 승옥이는 영문을 모르고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승옥아, 해마다 봄이 오면 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어날 게 아니냐! 난 앞으로 우리 고향도 그 매화꽃처럼 더욱 아름답게 꽃필 것을 바래서 이 나무를 심는다.》

그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 얼마나 행복한 기색이 어려 있었던 것인가!

승옥이는 그 후 봄마다 매화꽃이 활짝 피여 오르는 그 꽃나무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렇듯 지극하게 고향 마을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

《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못 다한 일, 다 못 이룬 소원을 풀어 이 고향 마을을 저 꽃처럼 활짝 피게 하리라!》

승옥이의 어린 가슴에는 이런 결심이 굳어만 갔다. 그래서 그는 농장에서 그렇게 극성스럽게 일하기 시작한 것이였다.

그가 농장에서 일하게 된 이듬 해 봄이였었다. 모내기 철이 다가 오자 농장에서는 옥수수 밭 두벌 김매기도 끝내지 못한 채 모내기에 달라붙었다. 그러니 김을 못 맨 옥수수 밭에서는 풀이 자랄 수 밖에 없었다. 승옥이에게는 그것이 못내 안타까왔다. 그는 생각다 못해 달'밤을 리용하여 그 김을 매리라 생각하였다. 온 종일 힘겨운 모내기 일을 하고 난 그가 밤에까지 일하려니 얼마나 몸이 고달팠으랴? 그러나 승옥이는 입을 꾹 사려물고 새차게 호미질을 해 나갔다.

한 번은 작업반장이 이렇게 달'밤에까지 남몰래 김을 매는 승옥이를 보았다.

《승옥아! 원 애두 이게 무슨 일이냐? 냉큼 집으로 가자.》

그 때 승옥이는 귀밑까지 빨개지면서 말했다.

《아저씨,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뙈기는 끝나겠어요. 난 남들처럼 일을 많이 못 하지 않아요. 그러니 봉창도 좀 해야 할 게 아니예요.》

승옥이는 바로 이런 처녀였다. 그러기에 미구하여 승옥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배'덩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마을의 붉은 처녀

날로 발전해 가는 농장 모습이며 벅찬 생활의 나날이며 당 단체와 민청 단체의 따뜻한 지도—이 모든 것은 날이 갈수록 승옥이의 눈을 띄워 주었다.

《공부를 해야겠어. 그렇지 않구선 앞으로 농사도 잘 할 수 없고 훌륭한 민청원으로도 될 수 없을 게야!》

이렇게 생각한 승옥이는 바쁜 농사'일의 짬짬에도 책을 펼쳐 놓고 공부하였고 민청 학습회에도 열심히 참가하였다. 영농 지식도 학습하였고 과수 재배 규정도 학습하였다.

한편 그는 민청 생활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민청 조직이 주는 위임이라면 열 밤이라도 해 내고야 말았다. 민청 단체와 청년들 속에서 승옥이의 신망은 날로 높아져 갔고 열 일곱 어린 나이에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으로까지 선출되였다.

승옥이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수상 동지의 로작들을 펼쳐 보았고 회상기 책을 읽어 보았다. 때로는 세포 위원장을 찾아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면 마음 속에서는 어느덧 새 힘이 부쩍부쩍 솟구쳐 오르군 하였다.

72 명 청년들의 취미와 성격은 각각 달랐다. 승옥이는 무엇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을의 김 동무는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청년이였다. 그는 고향 마을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지 못 하고 있었으며 오직 한 분인 자기 어머니와도 의가 맞지 않았다.

승옥이는 김 동무에게 고향에 마음을 착실히 붙이고 일하자고 간절히 권고도 해 보았고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도덕

품성에 대하여 타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 동무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둥 마는둥 하였다. 한 번은 그가 성을 벌컥 내기까지 하였다.

《동무, 누굴 교양하려고 그러오? 왜 자꾸만 치근거리오. 흥 별꼴 다 보네.》

그 때 승옥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네, 그래요! 난 동무를 책임진 민청 위원장이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무를 잘못된 길에서 돌려 놓고야 말겠어요.》

그 때부터 승옥이는 아침 저녁으로 그의 집에 가서 물도 길어 주고 일'손도 거들어 주었다. 그의 어머니를 도와 김 동무의 옷가지를을 빨아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를 동지적으로 내했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교양을 주었다.

세상에서 동지에 대한 깊은 사랑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 친누나인들 어찌 이렇게 살틀하게 대해 줄 수 있으랴!

김 동무는 차츰 승옥이의 진정과 동지애를 가슴 뜨겁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승옥 동무! 너무 욕하지 말라구.》

어느 날 김 동무는 승옥이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말했다.

승옥이는 이렇게 마을의 붉은 교양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72 명 민청원들을 한사람 같이 교양하여 묶어 세웠다.

그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모범으로 민청원들을 교양하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청원들은 옛날의 못자리에서 질 좋은 부식토를 파내게 되였다.

그것만 파면 수십 톤의 질 좋은 자급 비료가 쏟아져 나올 것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일부 동무들은 목을 움추리였다.

(저 산'더미 같은 눈을 언제 파내고 부식토를 파내나?)하는 생각이 간 것이였다.

이 때에도 승옥 동무는 남먼저 그 눈무지 속에 뛰여 들었다. 눈무지를 파내자 땅 속에서는 물이 솟아 나왔다. 그러자 그는 엄동 설한에 정갱이까지 빠지는 물 속도 서슴없이 남먼저 뛰여 들었다. 그리고는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자! 동무들 들어 서라요. 견딜만 한데요.》 하고 그는 소리치는 것이였다.

그 바람에 청년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 그리로 뛰여 들었다. 그러자 승옥이는 다시 웨쳤다.

《자, 모두 노래를 부르자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이 날 청년들은 혁명 가요를 높이 부르며 여러 톤의 비료를 생산해 내였다.

1962년 승옥이는 영예롭게도 조선 로동당원이 되였다. 그리고 이듬 해 봄에는 리 민청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240여 세대의 살림'군

당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무럭무럭 자라난 탕 승옥 동무는 지난 해 9월, 스물 한 살 어린



나이에 협동 농장 관리 위원장이 되였다. 그리고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 군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이제는 한 개의 민청 조직이 아니라 그는 240여 세대의 살림'군으로 되였다.

물론 이것은 힘에 겨운 일이였다. 그러나 처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 만큼 벌써 승옥은 정치 실무적으로 성장한 일'군이 되였던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사업을 옳게 이끌어 주고 가르쳐 주는 당 조직이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무한한 신심을 안겨 주었다.

그는 모든 일을 세심히 짜고 들었고 짜고 들었다.

한 번은 농장에서 20 일은 실히 걸려야 할 많은 땅의 옥수수 가을을 단 3 일 동안에 해 제껴야 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어려운 과업을 놓고도 나어린 관리 일'군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이 일을 조직해 나갔다.

그는 곧 관리 위원들을 모아 놓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운 다음 그들을 작업반마다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중 사업 조건이 불리한 작업반에 내려 갔다. 작업반에서 그는 우선 세포 회의에 참가하여 그의 타개책을 토의하였고 민청 회의를 지도하면서 민청 조직을 발동시켰다.

전투는 그 이튿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였다. 붉은기를 휘날리며 나아가는 청년 돌격대원들의 선두에는 탕 승옥 동무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무섭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 하루에 70 평 밖에 못 하던 옥수수 가을을 400 평, 지어 700 평까지 해 제끼는 동무들이 있었다. 그는 쉴참마다 청년들 속에 섞여서 여러 가지 담화들을 해 주었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옥수수 가을은 예정된 3 일만에 끝났다.

이 일이 끝났을 때 리 당 위원장 동무는 승옥 동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관리 위원장 동무! 과연 전투를 잘 지휘했소. 손색 없는 지휘관이요.》

그 때 승옥 동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 위원장 동무두 원! 모든 게 당에서 잘 지도해 준 덕분이지요.》

남달리 고향을 사랑하는 처녀 관리 위원장—그는 마을의 산과 골짜기들을 편답하면서 100여 개의 골짜기를 더듬어 물 원천을 찾아 내였고 그것으로 수십 정보의 밭에 관수를 하고 논풀이도 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아 내였다.

또한 240여 세대의 가정들을 다 료해하고는 어느 집 아이가 학업 성적이 어떠하며 어느 집 지붕이 비가 샐 념려가 있다는 것까지 세심히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는 제때 제때에 그들을 도와 주었다.

그는 그야말로 마을의 붉은 살림'군이며 호주이다. 그는 길에서 못 하나를 주어도 농장의 살림을 생각하며 그것을 정하게 간수해 두었고 어느 한 농장원이 농기구를 잘못 다루어 조금 파손시켜도 밤'잠을 못 자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농장원 방 동무의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못 하다는 말을 듣고는 며칠 밤 그의 집에 찾아 가서 가르쳐 주었고 뒤집 할머니가 앓아 누웠을 때는 군에 회의를 갔다가도 잊지 않고 약을 지어다 대접하기도 하였다.

실로 그는 온 마을이 사랑하는 관리 위원장이 되였다.

× ×

승옥 동무가 걸어 온 길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이 걸어 온 력사와 련결되여 있으며 그가 걸어 온 길은 우리 당의 품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 대한 하나의 축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하여 한 없이 깊은 긍지를 느끼며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어머니 당 앞에 머리를 숙이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사 기자 하 만춘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의 확립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 투사들의 조직으로서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고 그를 끝까지 실현하려는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야만 자기의 대렬을 자각적이고 강철같은 조직으로 만들며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는 일조일석에 확립될 수 없다. 그것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 속에서 이루어 진다.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는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래 전망을 예견하면서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확립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는가?

항일 무장 투쟁이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수립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에 기초하여 지도되였기 때문이다.

혁명 투쟁 행정에 어떠한 사상 체계가 확립되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투쟁이 누구에 의하여 령도되며 어떠한 로선에 의하여 지도되는가에 의존된다.

오직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혁명적 실천에 능숙히 적용할 줄 아는 령도자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이 수립되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 투쟁이 지도될 때에만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혁명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20 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였으며 그 혁명적 원칙들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실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였다. 또한 공산주의 운동이 령도자를 가지지 못 하였고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에 기초하여 지도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1920 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은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수 없었다.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는 1930 년대에 이르러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비로소 확립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당시의 우리 나라 혁명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정확한 혁명 로선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지도하였다.

이 로선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천명되였다. 강령은 장차 될 맑스-레닌주의 당의 강령의 기본적 요구를 반영한 문헌으로서 거기에는 우리 혁명의 성격, 동력, 대상을 비롯한 전략 전술적 문제들이 명확히 제시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강령은 공산주의자들과 유격 대원들을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로 무장시켜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였으며 반일 민족 해방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사업에서 공산주의 대렬 내의 로선 상 견해의 일치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의 지도 하에 공산주의자들과 유격 대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은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우리 나라 혁명의 실제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하도록 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로작들을 저술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유격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의 지도 하에 공산주의자들과 유격 대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임무로 간주하고 어떤 어려운 전투 환경에서도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리 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유격 대원들은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 대렬이 로동자, 빈농민 등 기본 계급 출신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였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자, 빈농민을 비롯한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해방에 관한 사상으로서 그들의 절실한 리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공산주의 대렬이 로동자, 빈농민 등 기본 계급 출신의 공산주의자들로 구려져야만 대렬 내에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가 확고히 수립될 수 있다.

그러나 1920 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주로 소부르죠아 인테리 출신들이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맑스-레닌주의에 공감하였을 뿐이였고 소부르죠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으며 혁명적 실천 속에서 단련되지 못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수 없었다.

1930 년대에 이르러서야 우리 나라 공산주의 대렬이 주로 로동자, 빈농민 등 기본 계급 출신의 공산주의자들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왜냐 하면 가장 압박 받고 착취 받던 로동자, 빈농민은 계급적 본성으로 보아 어느 계급보다도 맑스-레닌주의를 쉽게 받아들여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유격 대원들은 항일 무장 투쟁과 그와 련결된 각종 반일 투쟁 그리고 일상적인 학습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였다.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 조선 혁명 수행에서의 주체 사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그리고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등이다.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의 중요 내용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활동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에 기초하여 반일 민족 해방 투쟁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항일 빨찌산들이 무엇을 믿고 간고한 투쟁을 하였는가? 믿은 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하나였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해서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싸웠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정당성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였다.

그러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의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옹호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투쟁 로선과 방침이 바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구상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조직 지도되였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은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었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그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데서 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그들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그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것을 최대의 영예로, 의무로 간주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는 데서 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하는 맑스-레닌주의적 투쟁 로선과 투쟁 방침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종파주의, 기회주의에 대한 비타협성에서 발현되였다.

종파주의, 기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 량립될 수 없다. 더우기 1930 년대 우리 나라 종파 분자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을 허물며 공산주의 대렬 내에서 《령도권》을 장악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곧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종파주의, 기회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어떠한 종파적, 기회주의적 경향도 허용함이 없이 그를 극복 청산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 하였다.

조선 혁명 수행에서의 주체의 사상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적 립장에 서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조선 혁명에서의 주체의 사상은 조선 혁명의 주인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조선 인민이라는 립장, 주견에서 발현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은 조선 인민과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 부동한 립장에 서 있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조선 인민 자신이 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싸워 나아갔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조선 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혁명적 력량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무장 대오를 직접 조직하고 조선의 모든 반제, 반봉건적 력량을 반일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데 전심 전력하였다.

조선 혁명 수행에서의 주체의 사상은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창조적 태도에서 발현되였다.

1930 년대의 우리 나라 사회 경제 형편과 계급적 제 관계는 매우 복잡하였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당시의 복잡한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에 걸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혁명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초기부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의 실제 문제 해결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성격, 동력과 대상 등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정확한 혁명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혁명 로선과 전략 전술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모범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이 조선 인민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일환이며 국제 제국주의 전선을 격파하기 위한 투쟁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항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맑스주의 원칙에 충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철저한 국제주의자였으며 국제주의적 의무를 깊이 자각한 보다 철저한 애국주의자였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은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조국을 창건하려는 투쟁에서 발현되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 통치 하의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고 해방된 조국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조국과 고향 산천과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착취가 없고 압박이 없는 지상 락원인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또한 선조들이 이룩한 애국적 정신과 문화 유산에 대한 높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우리 조국의 력사를 연구하고 사랑하였으며 선조들이 남긴 문화 유산들을 존중히 하고 그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은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는 동시에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데서도 발현되였다.

원쑤들을 증오할 줄 모르고서는 원쑤들과 투쟁할 수 없으며 원쑤들과의 투쟁이 없이는 조국의 자유와 행복도 있을 수 없고 온갖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인민 대중을 해방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우리 빨찌산들은 원쑤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일상 생활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원쑤들과의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은 그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국제주의적 투쟁이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세계 제패를 야망하는 파쑈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서 그것은 조선 인민의 리해 관계에만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반파쑈 투쟁에 궐기한 전세계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공통적인 리해 관계에도 부합되는 정의의 투쟁이였다. 따라서 이 투쟁은 세계 혁명 운동의 일환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은 항일 무장 투쟁의 첫날부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였으며 전체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양을 강력히 진행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은 쏘련을 지지 옹호하는 데서 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도 인류 력사에서의 첫 사회주의 국가이며 세계 혁명의 근원지인 쏘련의 위력의 장성 강화에서 고무적 힘을 얻고 《무장으로써 쏘련을 지지 옹호하자!》라는 전투적 구호 하에 투쟁하였다. 그들은 일제가 쏘련에 대한 침략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수다한 전투를 진행하여 일제에게 후방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은 특히 장기간에 걸치는 중국 인민들과의 공동 투쟁에서 뚜렷이 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중국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은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중국 인민의 반일 무장 부대들과의 협동 작전을 조직하였으며 중국 인민들 속에서 우수한 간부들을 파견하여 정치 공작을 진행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중국 인민들을 자기의 친부모, 형제와 같이 사랑하였으며 중국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인민들도 유격대원들을 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은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고 투쟁하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적의 4면 포위 속에서 정권도 후방도 그리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진행된 류례 없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은 이 간고한 투쟁에서 어떠한 애로와 난관도 끝내 극복하고야 마는 완강성과 인내성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은 혁명 임무 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에서 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았으며 그 어떤 난관과 애로에 부닥쳐도 그를 용감히 극복 타개하면서 조직이 준 임무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참을 수 없는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였다.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은 또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풍에서 발현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무기,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해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여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였다.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은 또한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에서 발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령도 핵심은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을 어떠한 곤난 속에서도 항상 락관주의와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 속에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항상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었으며 혁명 승리에 대한 신념, 조국의 광복과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비관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난관과도 어떠한 강적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워 나아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맑스-레닌주의 사상 체계는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다.

우리 당이 창건 첫날부터 조직 전개한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투쟁은 곧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의 계승 발전을 위한 투쟁이였다.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전 행정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전체 당원들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그가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육성 단련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고 조선 혁명을 승리의 길로 능숙하게 인도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며 전 세계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간고하고도 복잡한 혁명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는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 당 사상 체계의 확고한 기초로 되고 있다.

단편 소설



동지애

황 승 관

(1)

불도가니 속처럼 끓어 번지던 전선의 밤은 잠시 숨을 쉬려는듯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부웅부웅》 히질기게 떠돌아 가던 적 포 지휘기마저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고 구분대의 토굴들이 자리 잡은 안침진 산'기슭엔 깊은 정적이 깃든다.

이런 밤이면 전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담소도 나누고 즐겁게 노래도 부른다.

그러나 이 곳 ××정찰 구분대의 정찰수들은 저마끔 깊은 시름에 잠겨 앉아 있다. 밤은 자꾸 깊어 가건만 누구 하나 잠'자리에 누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적후에서 돌아 오지 않은 소대장과 덕보 전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아직 자지 않고 이러구들 있소? 빨리들 눕소!》

밤이 깊도록 적진 쪽을 굽어 보며 안타까이 대원들을 기다리다 말고 잠시 전사들의 잠'자리를 돌아 보고 있던 중대장이 말했다.

그제서야 전사들은 하나 둘 자리에 눕는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바짝바짝 자리를 좁혀 눕고는 아래'목에 두 사람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는가!

(소대장과 덕보 자리구나!)

아직도 적후에서 돌아 오지 않은 전우들! 그러나 기어코 돌아 오고야 말 혁명 전우들을 위해 따스한 자리를 남겨 두는 그들의 고상한 동지애에 중대장은 스스로 눈'시울이 뜨거워올라 말 없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 때 《찌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다. 순간 중대장은 들뛰는 가슴을 누르며 다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에서 썩심한 목소리가 울렸다. 대대장 동무의 목소리였다.

《…아직 돌아 오지 않았소?》

그들이 돌아 오면 중대장이 인차 보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대대장은 아직도 잠들지 않고 벌써 네 번째나 전화를 건다.

《아직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답하는 중대장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였다. 그래서 그는 재차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꼭 돌아 올 겁니다.》

《허허,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나도 사단장 동무에게 꼭 온다고 했소. 그랬더니 사단장 동무도 몹시 기뻐하시더구만!》

《사단장 동지두요?!》

《사단장 동지 뿐인 줄 아오…》

순간 중대장은 다시 한 번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름 없는 두 전사를 두고 이 밤에도 사단장, 군단장, 아니 전체 지휘관들과 전우들이 밤'잠도 이루지 못 하고 심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소대장과 덕보의 모습이 석연히 떠오른다. 언제나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신망이 높은 소대장, 그러면서도 얼마나 요구성이 강하였던가! 한편 덕보로 말하면 1 차 남진시에 의용군으로 입대한 전사다. 박달나무처럼 딴딴하고 다부진 몸매에 크고 매듭 굵은 손이며 점붉고 너부적한 얼굴, 어려서부터 지주'집 머슴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그는 그 어떤 거인을 련상시킨다.

허지만 그는 그 우둥퉁한 생김새와는 어울리지도 않게 다감하고 인정이 많았다. 그는 자기의 몸에서는 살이 한 점 뚝 떨어져 나가도 움찍하지 않지만 동무들이 손'가락만 좀 다친 걸 보아도 눈이 휘둥그래져서 약을 발라 준다, 붕대를 감아 준다 하며 부산스럽게 돌아 간다. 그래 동무들은 그를 위생 지도원이라고 불렀고 미구에 그는 정말로 중대 위생 지도원 대리 임무까지 수행한 일이 있었다.

정말 그처럼 인정이 두텁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중대장은 《하늘이 무너진대도 우리 덕보 동무는 소대장을 데리고 올 게야…》 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2)

바로 어제'밤 습격에서 있은 일이였다. 추격해 오는 적을 헤 제끼다가 중상을 입은 소대장은 분대장에게 정찰 자료를 내맡기면서 대원들을 데리고 먼저 가라 하였다. 그러나 분대장은 그의 요구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건 안 됩니다. 소대장 동지가 돌아 가셔야 합니다. 놈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안 되오! 이건 명령이요!》

그리고는 대원들이 갈 반대 방향으로 적의 화력을 유인하며 중상을 무릅쓰고 달려 나갔다.

분대장은 할 수 없이 덕보 전사에게 소대장을 돌보라 하고는 대원들을 데리고 먼저 적후를 빠져 나왔다.

지휘관을 보호할 임무를 받은 덕보는 소대장에게로 다가 가자 다짜고짜로 그를 둘처 업었다. 그리고는 계속 적의 화력을 유인하며 칠성바위를 향해 내뛰였다.

《뿅뿅》

적탄은 귀밑을 스치기도 하고 《푹푹》 발끝에 박히기도 하였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순간 덕보는 커다란 바위 하나를 발견하자 재빨리 그 밑으로 은신하였다.

《소대장 동무, 몹시 아프지요?》

덕보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묻는다.

《일 없어.》

소대장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한다.

《소대장 동무, 분대장 동무랑은 얼마나 갔을가요?》

《이젠 뱀'골까지는 갔을 게요. 마음을 놓소…덕보 동무, 인젠 우리만 빠져 나가면 되오.》

《아마 중대장 동무랑 정찰 자료를 보면 몹시들 기뻐하시겠지요?》

땀으로 함뿍 젖은 덕보의 얼굴에는 끝 없는 행복감이 어리여 있었다.

《기뻐하시구 말구. 아마 래일 밤쯤은 섬멸탄을 퍼부을 게야!》

구름 속에 가리였던 쟁반 같은 보름'달이 헤염쳐 나오며 온 대지를 내리비친다. 높고 낮은 수 많은 봉우리들을 한 줌에 거느리고 우뚝 솟은 지휘산 봉우리가 정답게 바라 보인다.

그런데 이 때 원쑤들이 서너너덧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산 릉선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걸어 내려 오고 있었다.

듬성듬성한 가둑나무 사이로 검은 몸뚱아리가 언뜻언뜻 눈에 띄운다. 수색하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개새끼들이 정말 깜장 콩알을 먹고 싶은 게구나, 소대장 동무, 가까이 오면 해 치웁시다.》

덕보는 자기도 모르게 총가목을 틀어 잡으며 소대장을 마주 본다.

평소에는 그렇게 유순해 보이던 덕보의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튕겨 나오는듯 싶다.

《덕보 동무, 무터대고 싸우기만 하는 것은 정찰병의 태도가 아니야. 여기에 매복해서 놈

들의 눈을 피하자구. 난 여기 매복할 게 동무는 저 쪽 바위 밑에 매복하라구.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게요.》

미구하여 덕보는 소대장이 지적해 준 바위 밑에 가서 엎드리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좌측 능선을 따라 내려 가던 키다리 세 놈이 덕보가 매복한 너럭 바위를 향해 슬금슬금 다가 가고 있다. 길다란 그림자가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덕보는 전신의 근육이 폭발할 것처럼 팽팽해짐을 느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 소대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소대장은 덕보에게 다가 가는 놈들을 겨냥하고 비장한 결심을 다지고 있다.

(덕보만은 살려야 한다. 나야 이미 부상 당한 몸이 아닌가!)

이러는 사이에 적들은 덕보의 코앞까지 다가 왔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찰나 소대장은 수류탄 고리를 뽑아 들자 바위 우에 넝큼 뛰여 오르며 소리를 지른다.

《이 개놈들아, 인민 군대는 여기 있다.》

뜻밖에 벼락 치듯 하는 소리에 기겁을 한 놈들은 빈총 맞은 노루새끼처럼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급기야 정신이 드는듯 소대장 쪽으로 일제히 욱 몰려 간다.

커다란 바위 우에 마치 불굴의 거인과도 같이 우뚝 서 있는 소대장, 자신을 희생하여 동지를 구원하려는 그 숭고한 정신! 그렇다! 어찌 저런 소대장을 원쑤들에게 내말길 수 있겠는가.

덕보는 온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 오름을 느끼며 놈들을 향해 두두룩 련발탄을 안겼다.

야무진 자동총 소리와 함께 놈들은 삼'대처럼 쓰러진다. 그런데 뚱뚱한 놈이 설맞았던지 나무에 의지하여 총질을 해 대는 바람에 그만 소대장이 재차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덕보는 그 놈마저 재빨리 쏘아 넘기고 소대장에게로 달려 가 부상처를 찾아 붕대를 감았다.

《소대장 동무, 소대장 동무! 정신 차려요!》

그러나 소대장은 그저 멍하니 올려다 볼 뿐 응답조차 하지 못 한다.

덕보는 가슴이 탁 내려 앉는듯 함을 느끼며 소대장을 둘쳐 업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윽하여 령마루까지 올라 간 덕보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 조심히 주위를 살피였다. 그런데 여기 산'기슭에도 적들의 은폐호들이 있지 않는가? 부상병들과 간호원들이 우글거리는 게 적의 의무처임이 분명하였다.

다시 그 곳을 떠난 그는 한참만에야 자작나무에 뒤엉킨 깊은 다래덩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자리를 만들고 소대장을 내려 놓았다. 그제서야 소대장은 마음이 좀 안정되는지 허리를 펴며 눕는다.

어느덧 동녘 하늘은 희끄므레 밝아 오고 있었다.

(3)

적후의 하루는 지루하기도 하다. 정오가 되여 오자 8월의 태양은 불비를 쏟아 붓고 있다.

메마른 땅'바닥은 탈 대로 달아 마치 한증막 안에라도 들어 가 앉은 것처럼 숨이 탁탁 막힌다. 그런데 종일토록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견디려니 가슴 속에서는 불이 이는듯 싶다.

딱지진 입술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쓰리고 아프다.

덕보는 갈증을 느낄 때마다 소대장의 아픔을 헤아려 보군 한다.

(몸이 성한 사람도 이렇게 참기 바쁜데 소대장 동무야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러나 소대장은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 자기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래'입술을 꽉 깨물고 고통을 이겨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더욱 보기가 괴로왔다. 차라리 신음 소리라도 크게 지르면 마음이 놓일 것만 같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소대장의 아픔을 다만 얼마라도 나누어 겪을 수 있다면, 아니 그보다도 그의 아픔을 전부라도 넘겨 받을 수 있다면 덕보는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대장의 고통은 더욱 심해 갔다.

덕보는 온 종일 깊은 근심에 싸여 소대장의 옆에 지켜 앉아 있었다. 어느덧 적후의 하루해가 저물고 또다시 밤이 깃들었다. 그런데 소대장은 너무도 고통에 지쳐서인지 이제는 한 가닥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소대장 동무, 소대장 동무!》



덕보는 소대장을 자꾸만 흔들었다. 그러나 소대장은 이제는 응답조차 하지 못 한다. 정신이 몽롱해진 모양이다.

그는 다급히 소대장의 가슴에 손을 넣었다. 심장의 고동은 점점 약해지는지 맥박은 알릴락말락하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자 덕보의 가슴은 뭉클해지며 설음이 북받친다.

…배운 것이란 일 밖에 없어 제 이름'자도 쓸 줄 모르던 자기를 훌륭한 당의 전사로 키우겠다고 그처럼 애를 쓰던 소대장, 손수 자작나무 껍질로 수첩을 만들어 복습 문제까지 써 넣어 주고는 짬짬이 찾아 와 《다 했어? 어디 함께 해 보자구.》 하고 사람 좋게 웃으며 마주 앉군 하던 일이며, 며칠씩 계속되는 강행군의 쉴참이나 치렬한 전투 끝에 잠 잘 짬이 생길 때면 자기의 잠'자리는 안중에도 없이 전사들의 잠'자리부터 돌보아 주며 북데기 한 줌이라도 더 깔아 주지 못 해 아글타글 애쓰던 그…

이 때 덕보의 귀에는 언젠가 전초선에 찾아와서 들려 주던 사단장 동무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세상에서 동지처럼 귀중한 것은 없을 것이요. 우리가 항일 빨찌산에서 싸울 때였소. 우리에게는 박 준길이란 동무가 있었소. 참 좋은 동무였지.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소부대 공작을 나갔는데 깊은 수림 속에서 그만 적들에게 포위 당하였소. 그 때 준길 동무는 적들과 싸우다가 그만 가슴에 중상을 당했소. 우리는 그를 깊은 암자 속에 감추어 놓고 적들을 한 발'자국씩 딴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계속 가렬한 전투를 하였소. 그런데 이 때 준길 동무는 중상 당한 몸으로도 우리를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절벽으로 기여 올랐소.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 났는지? 그리고 그 절벽 우에서 자기의 내의를 찢어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그것을 물 들여 높이 흔들며 〈개놈들아! 빨찌산은 여기에 있다.〉고 소리 질렀소. 그러니 놈들은 다시 그 쪽으로 몰렸소. 놈들을 다 치고 난 뒤에 그가 있던 곳에 가 보니 그는 열 한 군데나 총탄을 맞고 있었소…》

정말 그 때 그 빨찌산은 얼마나 용감했던가! 전우들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중상 당한 몸으로도 천길 벼랑에 기여 올라 자기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붉은 기'발을 만들었다는 그, 그리고 열 한 군데의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는 그, 그런데 지금 자기는 성한 몸으로도 소대장 하나를 구원하지 못 한단 말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덕보의 가슴을 후볐다. 그는 어떻게 하던 사경에 처한 소대장 동무에게 수혈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 자기 피는 O 형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으로 수혈한단 말인가!)

순간 덕보의 머리에는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적후에서 곤난할 때는 적의 약점을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적의 의무처에 가서 놈들의 주사기를 빼앗아 오자!)

그것은 물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이 경각에 달린 혁명 동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끼랴!

덕보는 아까 보아 두었던 적의 의무처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포연에 그으른 풀'대와 나무'등걸 사이를 헤집어 디디며 살금살금 적 의무처까지 이른 덕보는 소복한 가둑나무 밑에 은신하고 주위 동정을 살피였다.

어디서 얻어 맞았는지 피묻은 붕대로 팔다리를 온통 싸맨 괴뢰군놈들이 작대기에 몸을 의지하여 표리를 물고 들이닥치고 있다. 그리고 비'바람이나 겨우 막을가 말가 하게 쳐 놓은 천막 속에서는 저마다 치료를 먼저 받겠다고 개싸움하듯 하고 있다.

《이 자식, 너는 상관도 몰라 보느냐!》

《급한 사람부터 먼저 봐야지 어찌자는께로.》

《이 자식 말'버릇 봐라!》

《말'버릇이 어쨌단께로?》

《이 개똥새 같은 자식!》

하는 앙칼진 소리와 함께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분노에 찬 웨침 소리가 들린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저 새끼 제 편에서 때리기까지 하네!》

《싸울 땐 꽁무니만 따라 다니던 놈이 그저 죽을 놈은 졸병 밖에 없어.》

《무엇이 어째?》

《뭣이 어쨌단 말이야, 저 새끼 쳐라!》 하는 소리에 이어 《우지끈지끈》 천막 속에서는 격투가 벌어졌다.

곁의 천막에서는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루루 모여 든다.

덕보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제일 우측편 천막으로 기여 갔다. 천막 깃을 들치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 천막 가운데는 수술대가 놓여 있고 그 우에는 다리 하나가 한 아름이나 됨직한 놈이 백포를 뒤집어 쓰고 죽은듯이 자빠져 있다. 곁에는 색안경을 코'등에 건 키다리 의사 한 놈이 그 놈의 다리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책상 우에는 형형색색의 의료 기구들이 가득 놓여 있다. 덕보는 그 속에서 주사기를 보자 단호히 결심했다.

그는 급히 붕대를 뜯어 왼 팔과 이마를 동여 감고 부상병으로 가장하고는 (그의 옷은 《국방군》 복이였었다.) 비호 같이 달려 들어 의사놈의 눈깔통을 쥐여 박았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들! 장교놈만 살구 졸병들은 죽으란 말이야!》

그러자 그 놈은 눈통을 싸쥐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런 틈을 타서 덕보는 주사기와 약솜을 집어 들고는 책상을 차 굴리고 달려 나왔다.

이것은 실로 눈 깜빡할 사이에 있은 일이다. 덕보는 단숨에 은폐지까지 달려 왔다. 그리고는 수혈을 시작하였다.

언젠가 위생 지도원 대리로 강습에 참가했을 때 수혈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다.

덕보는 자기의 팔에서 흘러 나오는 새'빨간 피가 방울방울 유리관에 차오르는 것을 볼 때 이것으로 사경에 처한 소대장을 소생시킨다고 생각하니 한량 없이 기뻤다.

수혈을 끝내고 한참 있노라니 소대장의 얼굴은 붉은 꽃송이처럼 피여 나기 시작했다.

《소대장 동무!》

덕보는 끝 없는 행복감에 사로잡히며 소대장의 얼굴에 볼을 비비였다.

적의 의무처에서는 대소동이 일어 났는지 와작 고아대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온다.

《개새끼들 실컨 싸워 봐라!》

덕보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소대장을 업자 아군 진지를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피를 뽑아서 그런지 팔다리가 노근해지며 맥이 풀린다. 한밤'중이 되여서야 덕보는 부대를 떠날 때 세 번째 통로로 정하였던 버들'골로 잡아 들었다. 아군의 전연이였다. 그러나 그는 얼마 더 가지 못 하고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일어 날래야 일어 날 수 없었다.

…이럴즈음 1분대장과 함께 잠복초에 나와 초조히 적진을 주시하고 있던 중대장은 숲 속을 헤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적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얼마쯤 걸어 가던 중대장은 숲 속에서 《씩씩》 하는 숨'결 소리를 감촉하자 가슴이 뭉클하여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덕보였었다.

《덕보!》

급히 다가 간 중대장은 그 곳에 쓰러진 덕보와 그의 등에 업혀 있는 소대장을 보자 그만 목이 메여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들을 한 품에 그러안았다.

《중대장 동무, 소대장 동무가 위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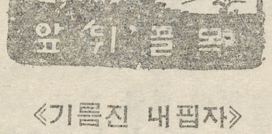
그제서야 덕보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며 걱정 어린 눈'길로 중대장을 마주 본다.

《걱정 마오. 사단장 동지는 동무들이 올 것을 확신하고 벌써 군의 동무를 여기 전초선까지 파견해 오셨소. 저기서 기다리고 있소.》

《사단장 동지가요?》

중대장을 말끔히 쳐다보는 덕보의 두 볼에는 행복한 빛이 어린다.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이슬이 샘솟았다.

그것은 때마침 비낀 달'빛에 진주와도 같이 령롱하게 반짝거렸다.



《기름진 내핍자》

《내핍 생활》을 하라고 《죽 먹기 운동》을 전개해 오던 남조선 위정자들은 요사이 고관들 속에서 료정 출입을 《자숙》하고 점심도 싸 가지고 다니라는 《도시락 운동》을 새로 벌려 놓았다.

이것이 내핍은 특권층에서나 하라는 비등되는 사회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고안해 낸 눈가림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뻔하다.

이름이 《도시락 운동》이지 친정에 나들이 가는 며느리 떡보따리 만큼이나 한 점심 그릇을 그들의 처첩들이 세단차에 실어 나르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어느 새 서울 장안에는 《백성들 소죽에는 소금 밖에 없는데 고관들 도시락엔 고기 빠다 투성이》라는 풍요가 나돌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기름진 내핍자》라고 부르게 되였다.

《내핍 생활》은 리 승만 때부터 내려 오는 남조선의 전통적 년중 행사이지만 고관 나리들 료정 출입 그만 뒀거나 내핍했다는 말 들어 본 적 없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도시락 운동》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굶기 운동》이라도 벌려 놓고 기세를 올려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가.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 (2)

송기용
김동백



서로 돕고 이끄는 풍속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며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서로 돕고 이끌어 왔다.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근심하고 문병하는 동시에 약을 구해 주며 초상이 났을 때에는 물질적으로 방조하였다. 결혼식, 집 짓기, 이사, 수해, 화재 등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는 내 일과 같이 도와 주었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이웃 사람들이 먼 곳에 사는 친척들에 못지 않게 친근하다는 말이다.

농민들이 부르던 《농가 월령가》에는 서로 돕는 정신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혼인 대사 부조하고
상장 우환 보살피며
수화도적 구원하고
유무상대 서로하야
날보다 요부한이
용심내여 시비 말고
그 중에 환과 고독
자별히 구휼하소.

우리 인민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정직한 사람으로 믿고 존경하며 그가 려비가 떨어졌을 때에는 음식을 대접하며 려비까지도 보태 주었다.

북청 지방에서는 《도청》이라는 훌륭한 집을 지어 놓고 길 가는 나그네를 편히 쉬게 하며 그에게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였다.

《농가 월령가》에는 농민들이 가을철에 음식을 차려 놓고 이웃 사람과 같이 즐길 뿐만 아니라 지나 가는 나그네까지 청하는 후한 인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황계 백주 부족할가 새우젓 계란 찌개
진창으로 차려 놓고 한가윌 혼할 적에
과객도 청하려라! 한동내 이웃할 때
수고도 나와 하고 없는 것도 서로 도와
이 때를 만났으니 즐기기도 같이 하세.

인간을 사랑하고 잘못을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품성이다.

조선 인민은 원쑤와 벗을 정확하게 가리면서 벗을 믿고 사랑하며 만일 그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를 일깨워 주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이러한 품성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욕심 많은 형에게 쫓겨 난 흥부는 형에게 구원을 청하려 갔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돌아 오면서도 결코 형을 욕하지 않았으며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형이 패가 망신을 하였을 때 동생 흥부는 지난날 형이 자기에게 가한 구박과 학대는 잊고 오히려 형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며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한다.

이와 같이 지극한 사랑과 관대한 용서, 진심으로 되는 충고 등은 그릇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과오를 스스로 느끼고 뉘우치도록 하였다.

가정 생활은 화목하고 단란하였다.

조선 인민의 아름다운 풍속은 가정의 이모 저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호상 관계는 존경과 사랑, 의리로 련결되여 있으므로 가정 생활은 화목하고 단란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성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그가 얼마나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가를 보았다.

조선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 부모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도 또한 자기 부모를 모시듯이 존경하였다.

시집 온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친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더욱 극진한 것이 보통이다. 자식들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건강을 보살피며 비록 젊은 사람들은 못 먹고 헐벗더라도 늙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부모가 비록 그릇된 말을 하여도 즉석에서 반대하지 않고 잘 리해시켜 드리는 등으로 부모에게 털끝만한 불편과 노여움도 주지 않는 것 등이 자식으로서의 응당한 도리로 되고 있다.

《농가 월령가》에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사람이 자식되여 부모 은혜 모를소냐
자식을 길러 보면 그제야 깨달으리
천신만고 길러 내여 남혼녀가 필하오면
제각각 몸만 알아 부모 봉양 잊을소냐
기운이 쇠진하면 바라느니 젊은이라
의복, 음식, 잠자리를 각별히 살펴 드려
행여나 병 나실가 밤낮으로 잊지 마소
곽가오신 마음으로 걱정을 하실적에
중중거려 대답 말고 화기를 풀어 내고
들어 온 지어미는 남편의 거동 보아
그 대로 본을 뜨니 보는데 조심하소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부모를 극진히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존중히 하여 부모가 못 다한 일은 자식이 이어서 끝내군 하였다.

더우기 부모의 원쑤를 갚아 드리는 것은 자식의 첫째 가는 의무로 간주되여 왔다.

부부 간의 사랑

우리 인민의 남녀 관계는 비할 바 없이 고상하다. 《례의지국》으로 불리워 온 조선에는 근친 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며 특히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남녀 관계가 우리 인민의 도덕 관념으로 되고 있다.

일단 백년을 가약한 다음에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자기의 송죽 같은 절개를 굽히지 않는 것이 조선 녀성의 도덕적 풍모이다.

백제 제 4 대 개루왕 때 서울의 레성 밖에서 농사를 지어 겨우 연명해 가는 도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안해는 절색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씨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은 도미 부인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자기 뜻을 이루지 못 했다. 그리하여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를 들씌워 도미의 두 눈을 빼고 한강에 띄워 버렸다. 그리고는 안해마저 처벌하려고 했으나 그의 모습이 황홀하여 감탄한 나머지 정식 후궁으로 맞아 들이려 했다. 도미 부인은 계책을 써서 왕을 속이여 궁전에서 나온 다음 남편을 따라가 초막 한 채를 짓고 소경이 된 남편을 받들어 여생을 의좋게 지냈다고 한다.

왕의 회유와 갖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현숙한 안해로서의 지조를

지킨 도미의 안해와 같은 녀성들을 우리 나라 력사에서 허다히 찾아 볼수 있다.

조선 인민의 남녀 관계는 좋을 때 만나고 불행하면 헤여지는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인내성 있게 서로 돕고 이끌면서 큰 사업을 같이 완수하고저 하는 가장 견실하고 고상한 관계이다.

고구려 평강 공주는 왕녀의 《존귀》한 몸으로 가난한 《바보》 온달에게 출가할 때 부귀도, 영화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부닥치는 애로를 극복하면서 남편을 방조하여 마침내 온달로 하여금 외적을 반대하는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울 수 있는 장군으로까지 되게 하였다.

남녀 관계에서의 미덕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업에 가정 생활을 복종시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녀를 따뜻이 입히고 배불리 먹이려는 것은 어머니들의 공통된 애정이다. 그 어느 어머니치고 이런 애정을 가지지 않는 분이 있으랴만은 그 중에도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히 두터운 것은 아마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일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어머니는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하는 데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인민을 위해 충성스러운 일'군으로 양육하는 데서도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 상에는 이러한 훌륭한 어머니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외래 침략자를 격퇴한 애국자들의 빛나는 승리와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학자들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이를 우리 나라 어머니들의 숨은 노력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김 숙흥은 11 세기에 거란 침략군을 격퇴하는 고려 인민의 투쟁에서 공훈을 세우고 애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애국적 장군이다. 그를 훌륭한 장군으로 되게 한 데는 그의 어머니 리씨 부인의 꾸준한 교양이 안받침되여 있다.

리씨 부인은 아들을 그의 아버지와 같은 용감한 군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는 한편 장래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용맹과 무예를 련마시키기에 극진히 노력하였다. 또한 병법을 배워 주며 군사 령도 예술도 가르쳐 주군 하였다. 어머니는 병사들이 쉬지 않는한 장수가 쉬지 말아야 하며 병사들이 먹기 전에 장수들이 먼저 먹지 말며 병사들이 솜옷을 입기 전에는 장수들이 솜옷을 먼저 몸에 걸치지 않는 기풍을 소유해야 한다고 항상 아들에게 가르쳤다. 어머니의 이러한 교양을 받고 성장한 숙흥은 거란의 침략에 대치하여 구성 방어 준비를 하던 중 1 년만에 잠간 집에 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생일날을 잊지 않고 있다가 고독한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려고 집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뻐할 대신에 적의 침략을 방비하는 임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 온 것을 엄격하게 책망하면서 아들을 집안에 들여 놓지도 않고 당장 떠나게 하였다.

어머니로서 군대에 동원된 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을 리 없고 자기 생일을 함께 지내고저 찾아 온 아들의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적을 앞에 두고 군무에 동원되였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립장에서 꾸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이런 교양을 받은 숙흥은 거란군을 반대하는 전투에서 생명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웠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억센 정신도, 천재적인 재능도, 모든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께서 배우기 시작하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하여 왔다.

16 세기 우리 나라가 낳은 명필인 한 석봉이 그처럼 글씨를 잘 쓰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원칙적인 교양에 의한 것이다. 석봉에게 어려서부터 글 쓰는 재간이 있다는 것을 본 어머니는 떡 장사를 해 가며 아들을 먼 절'간으로 보내여 공부를 시켰다. 10 년 기한이 되기도 전에 석봉은 적은 성과에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 왔다. 아들을 만나는 기쁨, 학비를 대기 곤난한 생각보다도 아들의 자만심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어두운 방안에서 자기는 떡을 썰고 아들은 글씨를 쓰게 하였다. 그 후 불을 켜고 보았을 때 어머니는 떡을 고르게 썰었는데 석봉이가 쓴 글씨는 고르지 못 하였다. 어머니의 현명한 실물 교육에 의하여 석봉은 자기의 자만심이 잘못된 것임을 깊이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세계적 명필로 된 것이다.

형제 간의 화목

우리 인민은 남달리 형제 간에 화목하고 의리가 두텁다.

우리의 많은 전설들에는 의좋게 지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 중 《의좋은 형제》, 《금을 물에 던진 이야기》 등은 그의 대표적인 것이다.

《의좋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이러하다.

한 농민 형제들이 성장하여 장가를 들자 분가하게 되였다. 그래서 추수를 한 다음에 형제가 벼를 서로 분배하였다. 밤에 형은 생각하기를 《동생은 새로 살림을 차려야 하겠으니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러니 벼를 몇 가마니 동생 몰래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벼 가마니를 동생의 집 고'간에 져 갔다. 그러나 아무리 밤새도록 져 날라도 자기의 벼 가마니 수는 줄지도 않고 동생의 벼 가마니 수는 늘지도 않았다.

동생은 또한 동생 대로 《형님은 부모도 모시고 가족도 많은데 더 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형 몰래 벼 가마니를 형의 고'간에 져 갔던 것이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밤새도록 벼를 져 나르다가 서로 마주쳐서야 벼 가마니가 늘지도 줄지도 않은 리유를 알게 되였다고 한다.

《금을 물에 던진 이야기》는 의좋은 형제가 금'덩이를 강물에서 주었는 데 형제가 서로 사양하고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

우리 인민의 이 모든 미풍 량속들은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빨찌산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항일 빨찌산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 품성을 계승하여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공산주의 도덕을 형성 발전시켰다.

항일 빨찌산들 속에서 형성 발전한 공산주의 도덕은 해방 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청년들은 자체의 공산주의 도덕 수양에서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 량속을 계승하며 특히 항일 빨찌산의 숭고한 도덕적 품성을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시대의 천리마 기수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시대에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혁명 전사의 겸손성

박 충 [illegible]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겸양지미》라는 말이 있다. 겸손한 품성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겸손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덕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에는 겸손을 찬양하고 자만과 교만을 멸시하고 증오한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이 그 대로 생동하게 반영되여 있다.

겸손성—이것은 오직 근로하는 인민들,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품성이다.

착취 계급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인민을 짓밟고 제 혼자 잘 사는 데서 자기 생활의 보람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겸손성이 아니라 공명과 교만이 특유한 품성으로 된다.

오직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인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자기 생활의 모든 기쁨과 보람을 인민의 운명과 련결시키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속에서 자기 생활의 진정한 의의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기 개인의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그 어떤 자만도 없으며 또 그들은 그 어떤 평가도, 보수도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성의 모범을 혁명가—공산주의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혁명가—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오직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는 사람들이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명이 필요 없다. 혁명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민들에게 잘 복무하며 당 정책의 정당성을 인민에게 확신시키며 인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은 가장 겸손한 품성의 소유자들이였다. 그들은 원쑤들에게는 사자 같이 대하고 인민들에게는 양처럼 어질게 대했다. 또한 동지 호상간에는 공로는 남에게 돌리고 결함은 항상 자기에게서 찾았다.

조직의 위임을 받고 《산림대》나 기타 반일 부대들에 파견되여 자신들의 고매한 사상과 품성으로 그들을 감화시킨 사실이라던가, 적들의 통치 구역에 파견된 정치 공작원들이 꾸준한 해설과 겸손한 품성으로 봉건적인 사상 잔재에 물젖은 로인들과 지어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들까지도 개조하여 혁명 조직에 망라시킨 사실이라던가 그들의 겸손성에 대한 실례는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인민들을 존경하고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목숨으로 보위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지방 풍습을 존중시했으며 례절을 깍듯이 지켰다. 때문에 인민들은 언제나 항일 유격대원들을 자기들의 혈육처럼 사랑하였다.

겸손성의 기초에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무한한 존중,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에 대한 존경이 놓여 있다.

겸손성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반면에 교만과 공명주의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증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서는 오직 인민 대중만이 그것을 리해할 수 있으며,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살아 가는 착취 계급들은 돈의 가치, 물건의 가치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에는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의 힘과 가치에 대한 가장 높은 평가가 구현되여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도 로동자, 농민이고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도 로동자, 농민》 (김 일성)이라는 관점은 사람들에게 결코 자기의 조그마한 공로를 뽐낼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인민 대중의 투쟁에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고상한 의무로, 영예로 생각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겸손성은 조직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도 표현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자신을 군중 우에 올려 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독단을 반대하며 자신의 소총명을 내세우지 않으며 대중의 창발성과 지혜를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로부터 그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적극적으로 의거하여 사업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직 앞에서 허심하게 자기의 과오와 결함을 내놓고 자기 비판하며 또한 조직에서 주는 비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결함과 부족점을 대담하게 고친다. 그들은 조직의 규률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자신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조직 내에 두 가지 규률을 조성하지 않으며 조직이 맡긴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만약 그 어느 초급 민청 단체 일'군이 자신을 조직 우에 내세우며 규률을 모범적으로 지키지 않으며 군중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필경 거만한 일'군으로 될 것이며 청년들은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겸손성의 기초에는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도덕적 리상이 놓여 있다.

높은 리상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성과에도 만족한다. 만약 그 어느 청년이 자기가 이미 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불피코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례컨대 과학을 전공하는 청년이 자기가 이미 알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과학 앞에 겸손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하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조국과 인민 앞에 자기가 지닌 무한히 큰 사명을 자각하지 못 하고 오직 자기 개인의 공명과 출세에만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자신의 조그마한 성공에 자만 도취하고 말 것이다.

겸손성은 자기 개인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전제로 한다.

리상이 옅은 사람, 생활의 목표가 보잘 것 없는 사람은 언제나 공명을 얻기에 조급하며 조그마한 성과에 자만 자족하며 또 그런 사람에게는 교만이 특유하다. 일시적 공명에 만족하고 공명만 추구하는 것은 미래가 없이 오직 그 날 그 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 가는 착취 계급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리상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 앞에 나선 과업, 자기 자신을 부단히 완성시킬 데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겸손성이란 사람들의 언행에서의 한갖 겉치레나 허식이 아니다. 그것은 그 기저에 놓여 있는 집단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 인간의 가치에 대한 높은 존경, 고상한 도덕적 리상 등 온갖 고귀한 도덕적 품성의 종합적 표현이다. 그것은 높은 도덕적 신념과 리상에 의하여 안받침된 웅심 깊은 품성이다.

겸손성—이것은 사람들을 조국과 인

민을 위해서 투쟁할 줄 아는 참된 혁명 전사로 되게 하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혁명 정신을 낳으며 또 혁명 전사로서의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또한 그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기본 요구의 하나인 고귀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낳게 하며 사람들을 우리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단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겸손성을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무엇보다도 인민들과 집단, 조직과 동지들 앞에 겸손하여야 한다.

인민들 앞에서의 겸손성은 례절 바르고 경건한 언행에서 나타나며 생활에서의 허식 없는 소박성으로 나타난다.

겸손성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품위를 한층 높여 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실례를 공화국 2중 영웅 리 명석 동무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혁명 전사 리 명석 동무에게서 그 겸손성이 그의 품위를 얼마나 높여 주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얼마나 존경하게 하는가를 보게 된다. 자기의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함으로써 영생 불멸의 공훈을 세운 그는 그 어느 때건 결코 자기의 공훈으로써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기가 조국과 인민 앞에서 모든 일을 다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공로를 10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조국 앞에서 한 일을 적게 생각하고 영예 군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국과 인민 앞에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만 생각하였다.

바로 이러한 그의 겸손한 품성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감동시키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모범을 본받아 인민과 집단 앞에서, 또한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언제나 학습에서 겸손하여야 한다. 과학에는 끝이 없다. 만일 우리들이 인류가 축적한 정신적 재부로써 자기들의 머리를 풍부히 하려면 밤낮 없이 학습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는 언제나 초학생다운 겸손한 태도로 배워야 한다. 자기가 과학 앞에서 이미 알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의 현실은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벅찬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과학을 보다 깊게, 보다 넓게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응당 기술 문화 혁명 시대의 청년답게 항상 배워야 한다.

청년들의 겸손성은 일상 생활에서, 그의 실천 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문화적이면서도 겸손한 옷차림, 고상한 언어 례절, 부지런한 근로 정신, 이 모든 품성은 한 인간을 빛나게 장식하는 불가결의 요소로 된다.

> 《옥은 갈아야 하며 재목은 다듬어야 하고 사람은 배워야 한다. 사람이 배울 줄을 모르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으며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용감하다고 할 수 없다. 리해한 뒤에 용감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이야말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다.》
>
> (홍 대용)

새것과 낡은 것

로 재 선

새것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지향, 이것은 청년들의 생활 감정 속에 가장 강하게 뿌리 박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유한 특성이다. 청년들에게는 새것을 좋아하며 새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무엇이든 새것이라고 느껴질 때에는 반드시 그의 뜻을 새겨서 연구해 보고야 마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새것이란 우리 청년들이 저도 모르게 끌리는 매혹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청년들 자신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새 삶, 새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잡한 사회 생활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옳게 갈라 내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새것은 처음에는 매우 미미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더우기 생활에서는 낡은 것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며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새것으로 가장하여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것과 낡은 것이란 무엇이며 그들의 호상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 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 도덕 수양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주며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혁명적 락천성을 배양할 수 있게 해 주며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배양시켜 준다.

그러면 새것이란 무엇이며 낡은 것이란 무엇인가?

새것이란 새로 자라 나는 진보적인 것, 혁명적인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새것이라면 우리 혁명 발전에 유리한 것들이다.

낡은 것이란 시대에 뒤떨어져 발전하는 새 현실에 맞지 않으며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는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것을 말한다. 우리 혁명 발전에 장애로 되는 것은 곧 낡은 것들이다.

새것과 낡은 것에 대한 례는 사물 현상의 발전과 우리의 일상 생활 및 사회 정치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남조선 실례를 하나 들어 보자.

오늘 삶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투쟁은 괴뢰 정권의 각종 반동적 악법들의 페절을 요구하는 반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남조선 사회의,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새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작년 12월 17일 서울에서는《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개원식》이 벌어졌고 리승만, 장 면 괴뢰 정권의 뒤를 이여 소위《제 3 공화국》이 수립되였다. 오늘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제 3 공화국》수립이《민의를 대변한(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뜻) 대의제로의 복귀》라느니.《제 3 공화국의 장래는 유망하다》느니 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군사 테로 통치와 인연이 없는 그 어떤 새것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제 3 공화국》은《대의제 정치의 회복》도 아니며《민정의 복귀》도 아니다. 이것은 박 정희가 《외장》 대신 《대통령》이란 명패로 바꾸어 달고 그대로 주저앉은《군정》의 연장으로서《민정》의 탈을 쓴 식민지 괴뢰 통치 기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례를 들어 보자. 그들은《정세의 변화》와《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맑스-레닌주의를《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실 밑에서 그리고 교조주의를 반대한다는 미명 하에서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 리론을 류포시키면서 그것을《새것》이며《창조적》인 것으로 묘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들의《리론》에는 《새로운 것》이란 티끌 만큼도 없으며 지껄이는

소리란 모두가 낡아빠진 진부한 것 뿐이다. 그것은 그들의 리론과 주장이 사회 발전, 사회적 진보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리론》과 주장이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의 리론과 본질 상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마치도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새로운 기여나 한듯이 떠들고 있다.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초계급적》인 것으로 전 국민에 대해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없이 부르죠아 국가 기구의 파괴없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력사는 착취 계급이 스스로 자기의 지배권을 내놓고 력사 무대에서 물러 선 경우를 아직 모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선심을 써서 정권을 로동 계급에게 그저 넘겨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이며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에 홍시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환상이다.

이 《리론》은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아니며 사실 상 합법적인 의회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 없이 《개량의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자연 생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제 2 국제당의 베른슈타인의 리론과 다름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평화적 공존》을 떠들고 있으나 그가 아무리 《새것》을 표방하고 별의별 《가장》을 다한다 해도 자기의 반동적 본질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새것과 낡은 것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았다.

그러면 새것과 낡은 것이 사물 현상의 발전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에 대해 보기로 하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바 이는 곧 낡은 것이 멸망하며 새것이 발생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례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사회의 발전은 결국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낡은 것의 멸망과 새것의 승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량자간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한다고 해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저절로 사회주의에로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낡은 반동적 부르죠아 계급을 전복하기 위한 새로운 진보적 로동 계급의 치렬한 혁명 투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새것은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일시적 실패와 후퇴를 거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승리하고야 만다. 즉 로동 계급은 자본가 계급을 반대하는 계급 투쟁에서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면 새것이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새것은 사물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것은 우연하게 생겨 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발전 단계에서 준비된 필연적인 산물이며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잘 적응한다. 그러므로 새것은 언제나 생활 능력이 강하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낡은 것은 이미 변화된 새 환경과 조건에 적응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존재 조건을 잃어 버린 것이다. 때문에 량자 간의 투쟁에서 새것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례를 들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결과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시기까지 발전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장애물로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더는 존재할 수 없는 낡은 것으로 전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해서 교체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 때에 생산력 발전에 리해를 가지는 새로운 세력인 로동 계급은 사회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지 밑에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쟁취한다. 그 어떠한 힘도 낡은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새로운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이 필연성을 막아 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새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초기에 있어서는 미약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발전의 법칙에 의하여 조만간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 세력을 타승하고야 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회주의의 발생 발전과 승리의 전 력사적 행정이 똑똑히 말해 주고 있다.… 낡은 봉건 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 발전한 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 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발전의 법칙이다.》**

둘째로, 새것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새것이 선행 단계의 낡은 것 속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섭취 리용하며 계승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새것은 낡은 것의 태내에서 자라 나면서 선행 단계의 부정적인 것을 청산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계승함으로써 언제나 낡은 것보다 발전의 능력을 더 많이 가지며 또 그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물론 이 계승은 낡은 것을 단순하게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것의 발전에 적응시킨 비판적 계승이다. 례를 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황금의 예술》로 절찬을 받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은 선조들이 남겨 놓은 훌륭한 문화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회 생활에서 새것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새것은 인민 대중의 리익에 일치되는 것이므로 인민 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실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15여 성상 싸워 이긴 항일 무장 투쟁을 이야기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유격대는 우리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창건된 것이다. 항일 유격대는 우리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미래를 대표한 새로운 세력이였다. 그러므로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날이 장성 강화되였으며 특히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아 끝내 일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모든 사물 현상의 발전이란 언제나 새것과 낡은 것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들이 새것에 대하여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새것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은 철두철미 계급적 립장에서 그리고 주체적 립장에서 새것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로동 계급과 사회주의 혁명 특히 우리 나라 혁명에 리로운 것이 새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를 적극 지지 옹호하여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게는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당 정책은 새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 정책을 안다는 것은 곧 새것의 요구를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은 새것의 불가극복성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난관과 애로 앞에서도 굴함없이 전진할 수 있다.



민족 해방 혁명과 무장 투쟁

량 섭

피압박 민족들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해방과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중요한 생명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피땀으로 비대해졌다. 그들은 타국 령토를 침략하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식민지를 타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 리용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지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물러 가기는 고사하고 한치의 땅이라도 더 걷어 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 반동적이며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의 이러한 본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더욱 횡포해지며 발악한다.

그러므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떠한 《선심》도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력사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스스로 물러 간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독립을 《선사》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결코 어떠한 환상도 가질 수 없으며 오직 반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피압박 민족들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피압박 인민들은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예봉을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인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려야 한다.

미제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이며 국제 헌병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국 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제를 그냥 두고서는 어느 나라도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없으며 하루도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없다.

그러면 피압박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로동 계급의 당과 혁명적 선진 분자들이 혁명 투쟁의 선두에 서서 농민을 비롯한 모든 반제 력량을 결속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 계급의 당이 혁명을 옳게 령도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의 정확한 령도가 없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이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고 정확한 전략 전술을 세우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투쟁에로 옳게 조직 동원할 때만이 혁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로동 계급의 당이 군중을 쟁취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려 있다. 혁명적 군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지 않고는 로동 계급의 당은 혁명 투쟁을 전개할 수 없으며 혁명을 령도할 수 없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계층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켜야 한다.

로동 계급의 당은 민족 해방 혁명의 과업을 농민 대중의 리해 관계와 옳게 결합시키고 그들을 투쟁에 광범히 동원함으로써만이 혁명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로동 계급의 당은 농민과 함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투쟁에 광범히 끌어 들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모든 반제 력량을 집결시키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킬 때만이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둘째로, 민족 해방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쟁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로동 계급의 당은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형태의 투쟁에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특히 현 시기 민족 해방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투쟁이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식민지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그저 주지 않으며 그들은 군대, 경찰, 헌병 등을 동원하여 식민지 인민들의 온갖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때문이다.

무장한 반혁명에 대해서는 무장한 혁명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무장 투쟁을 요구하며 인민들 자신이 무장을 들고 결정적 투쟁에 나서는 오늘 《평화적》 방법 만을 주장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하더라도 제국주의자들이 간섭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혁명 력량이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말 것을 설교하고 있다.

혁명 군중은 무장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데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평화》타령만 하면 혁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제국주의와 반동의 폭력에 항거하여 싸우지 않고 투쟁을 포기하며 반혁명의 공세가 무서워서 정권을 잡지 않는다면 피압박 민족들은 어느 때 가도 해방될 수 없으며 독립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로동 계급의 당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혁명을 령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계급이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군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통치를 폭력에 의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에게 평화적 방법만 강요하는 것은 사실 상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계속 감수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족 해방 투쟁에서 어떤 투쟁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개 나라가 처한 구체적 실정에 따라 그 나라 당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만행 여하와 혁명의 주 객관적 정세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평화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로동 계급의 당이나 혁명적 군중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린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계급 투쟁이 격화되면 많은 경우에 그것

이 무장 투쟁으로 넘어 가게 된다. 전쟁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결코 혁명적 군중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군중을 탄압하는 착취 계급들에게 달려 있다. 지배 계급이 폭력으로 혁명 군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혁명 군중이 폭력으로써 대항해 나서는 것이다.»

반동적 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하여야 하며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 무장한 반혁명에 대치되는 혁명적 무장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적 세력 앞에서 혁명 력량을 보존할 수 없으며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무장 투쟁은 반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 형태다. 피압박 민족들이 단결하여 무장 투쟁에 궐기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제국주의와도 싸워 이길 수 있다.

력사적 사실은 이의 정당성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 있다.

미제의 코앞에 있는 섬나라 큐바는 일곱 자루의 보총으로 혁명 투쟁을 시작하여 강대한 적들과 싸워 이겼으며 알제리아는 수백 자루의 렵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하여 현대적 무기와 강력한 병력을 가진 불란서와 7 년 간에 걸쳐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하였다.

오늘 무장 투쟁은 남부 월남, 앙골라, 베네주엘라 등 세계 도처에서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비록 간고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의의 투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이 영웅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고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무장적 원조까지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지지 성원하기는 고사하고 이 구실 저 구실 붙여 가면서 오히려 그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세계 열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살 행위》니, 《인류를 멸망시키는 무모한 행위》이니 하며 모독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열핵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인데 독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웨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핵무기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면서 핵무기 시대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의 구별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이 다 인간 살륙의 범죄이며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전쟁 일반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성격을 절대로 변경시킬 수는 없으며 이것은 하나의 전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핵무기는 원쑤들이 소유하였을 경우에만 전쟁을 도발시킬 수 있으며 인류에게 재난을 들씌울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것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은 열핵 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불장난을 방지할 수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력량이 날로 장성 강화되며 또한 사회주의 진영이 그보다 더 유력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데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인민들에게 혁명을 그만 두게 하자는 것이며 무장한 적들 앞에서 식민지 인민들을 무장 해제시킴으로써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영원한 노예가 되여도 좋다는 것이다.

이것은 배신적인 행위이며 헛된 수작이다. 오늘 피압박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장을 들고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수정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으며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멈추어 세울 수는 없으며 민족 해방 투쟁의 종국적 승리와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청산은 불가피하다.



신문과 우리 생활

김 호

우리는 매일 아침 일과처럼 신문을 받아 든다. 1 면부터 4 면까지 빼곡이 차 있는 기사들의 제목들을 한 번 훑어 보고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부터 차근차근 읽어 들어간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과 정부의 정책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사론설과 보도들, 사업 경험과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이모저모로 취급하고 있는 무게 있는 경험 기사와 지도 기사들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주의를 이끌어 간다. 그것은 이 기사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우리 생활과 사업의 방향을 규정해 주기 때문이다.

3 면에서 취급되는 남조선 정세 자료들과 국제 시사 보도들,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 자료들은 또한 얼마나 흥미 있고 교양적인가!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읽을 때면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제를 비롯한 국제 반동들의 침략 기도를 분쇄하는 세계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대하고는 스스로 주먹을 부르쥐군 한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나라 인민들에 비하여 착취도 억압도 모르며 오직 자유롭고 행복하고 보람차기만 한 우리 생활을 새삼스럽게 돌이키게 하며, 이런 생활을 가져다 준 당과 우리 제도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케 한다.

4 면의 문화 교양 자료들, 다양한 문화 소식들과 문예 작품들도 우리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 준다. 과학 기술 지식들과 생활에서 요긴한 토막 상식들까지도 우리의 주목을 사로 잡는다.

우리들은 이처럼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에서 날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 나며 첨예한 계급 투쟁으로 특징적인 현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가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의 동맹 조직이 청년들 앞에 당면하게 제기하고 있는 과업이 무엇이며 따라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된다. 우리들은 바로 신문의 도움으로 자신을 사상 정치적으로, 문화 도덕적으로 더욱 굳건히 수양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문—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소중한 벗이며, 우리 생활의 길을 밝혀 주고 이끌어 주는 친절한 길잡이이기도 하다.

그러면 신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리용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신문을 읽는 사람의 직업과 위치에 따라서, 그의 준비 정도와 구체적 목적, 필요에 따라서 지어 각자의 취미와 기호, 사고 방식의 특성에 따라서까지도 그 대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제기해야 할 것은 신문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잡는 문제이다.

신문은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는 지면도 아니며, 읽으면 읽고 말면 말 수도 있는 심심풀이와 흥미꺼리도 아니다.

한 토막의 기사에도 당의 목소리가 울리며, 한 줄의 글'발에도 당의 의도가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 당'적 출판물의 특징이라면 이러한 신문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는 명백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앞서 신문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들은 당원들의 정치 학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보를 읽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정치 리론 서적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보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무들이 당보를 보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과 당 중앙의 의도를 알 수 없다.

당은 당보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자기의 정책을 알려 주며 행동 방향을 지시하며 신호를 준다. 특히 당보의 사설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이다. 거기에서 당원들은 일상적인 투쟁의 방향과 지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교시 정신은 청년들이 당보 뿐만 아니라 동맹 기관지에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대로 관철되여야 한다. 우리는 신문에 실리는 중요 사설들과 론설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꾸준히 높여야만 사업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또 범한 과오도 제때에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문을 실'속 있게 체계적으로 읽는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돌이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하루도 빠짐 없이 신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 주위의 현실 생활과의 련계 속에서 전 호들과의 내용적 련계를 념두에 두면서 읽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면마다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당이 사상 사업 앞에 제기하는 기본 방향에 튼튼히 립각하여 일정한 문제를 체계성 있게,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편집된다.

가령 어느 한 사람의 공산주의 미풍을 소개하는 교양 기사를 읽는다고 하자.

기사에 담겨 있는 감동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며, 기사가 말해 주는 본질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사를 거울 삼아 자기 생활, 자기 주위 현실을 비추어 보고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 점일 것이다. 남의 일 대하듯 관조적이고도 랭담하게, 사실을 사실로만 대한다면 신문이 발휘하는 그처럼 큰 생활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적다고도 할 수 있을 미거를 두고도 우리 시대의 아름다움과 우리 제도의 비길 바 없는 우월성을 숙고할 줄 알며, 바로 그처럼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고 투쟁해 나가려는 결의를 다질 줄도 아는 뜨거운 심장으로 신문의 글'발을 다듬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신문의 본질적 사명은 사실과 지식의 단순한 전달자로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의 거울로 되게 하고 생활을 개조하는 위력 있고 예리한 무기로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에 반영되고 있는 사실들, 신문에 실리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 어느 때나 리용할 수 있게끔 자료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과 필요에 따라 그 실무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쓸모가 있는 방법임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가령 그가 민청 초급 단체의 교양 부문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맹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면서 동맹이 제기하는 지 더 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들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그리하여 매 면의 기사들을 부문별로 오려 내여 만든 각종 자료집— 례하면 혁명 전통 연구 자료집, 공산주의 교양 자료집, 남조선 정세 연구 자료집, 문화유산 연구 자료집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첫 장에는 일정한 목차를 달고 매 자료들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색연필로 표식까지 한 이 자료집들은 날이 감에 따라 새로운 자료로 보충될 것이며,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당한 문제를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자료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기동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맹원들이 어느 때나 펼쳐 볼 수 있는 손쉬운 곳에 비치해 두며 교양 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그 자료들을 상기시키고 인용하면서 다른 맹원들로하여금 그 자료집을 보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추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면의 민청 사업 경험들과 4 면의 흥미 있는 문화 상식 등도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4 면으로 펼쳐져 있는 다양한 기사들과 자료들을 부문별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재편집하는 과정이라고 할가…

그러나 이것이 신문을 쓸모 있게 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아니다. 자료를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학습 교양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잡지와는 다른 신문의 선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집체적으로 독보하고, 그 날 제기된 사업과 련결시키는 선동 사업의 무기로 신문을 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면에서 평양 전기 공장 주물 직장, 조립 직장 민청 단체의 경험은 소중하다. 이 직장들의 작업반마다에서는 신문의 부수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실정과 관련하여 신문을 매일 집체적으로 독보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는데 출근 후 작업 시작 전까지의 시간, 식사 후의 휴식 시간, 회의 전후의 토막시간, 지어 작업 준비를 위한 짬짬 시간까지도 남김 없이 독보 시간으로 바치였는데 결과는 날마다의 신문을 어떤 적은 기사도 빼놓지 않고 남김 없이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흥미 있는 기사를 들려싸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시끄러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봐야 내용을 옳게 파악할 수 있다는 등의 시비도 있었으나 독보 책임자들의 인내성 있는 창발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이 방법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틈틈이 신문을 들여다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던 것이다. 사실 혼자서라면 그처럼 바쁜 작업을 치루면서 신문을 속속들이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 가기는 어려운 일임은 틀림 없다. 지금 이들 작업반원들 사이에서는 빈번히 정치 시사 문제, 남반부 정세와 국제 정세 문제를 중심으로 론의가 오고가는데 그 론의가 체계성을 띠고 일정한 수준에 오르고 있다는 것도 역시 집체적으로, 진지하게 신문을 연구한 보람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상 필요에 의하여 즉 어떤 깜빠니야적인 사업이 벌어지거나, 갑자기 회의를 준비하려 할 때 해당한 문헌들과 보고문, 호소문 자료를 찾지 못 해 땀을 빼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조그만 수첩에 중요한 문헌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색인표 같은 것을 일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요긴할 것이다.

신문을 집단적인 실효 투쟁을 위한 예리한 무기로, 사업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토론과 론쟁의 무대로 리용하는 것은 오늘 대중적인 특성을 띠는 우리 신문의 성격으로 미루어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신문 지상을 통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할 데 대한 결의가 소개되고 호소되는 일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며, 일정한 문제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상 토론이 벌어지군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러한 호소에 호응하며 지상 토론에 참가하는 일은 비단 호응과 토론 그 자체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통제 받고 사업에서의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며, 나아가서 자기 주위 사람들의 사업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으로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부차적인 문제이라고는 하겠지만 기사를 통하여 말과 글을 배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자들의 글은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만큼 기사들에서 풍부하고 좋은 어휘들을 배우며, 적절하고 형상력이 강한 표현들, 째이고 다듬어진 문장 조직의 솜씨 등을 익혀 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언어 정화 사업과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는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매우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신문을 이 면에서까지 리용한다면 그것은 곧 일석 이조, 혹은 일석 삼조(一石二鳥, 一石三鳥—돌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 내지 세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 이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말

쉬운 말을 쓰자

박 수 영

말은 우리의 손, 발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말은 반드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을 써야 한다.

그러면 왜 쉬운 말을 써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까다롭고 힘 든 말을 해서는 서로 친절히 사귈 수도 없고 감정과 생각도 서로 잘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례를 들어 《명옥 동무네는 동기가 많아서 좋겠어요.》 (《형제와 자매》라는 뜻), 《명옥 동무네 집에는 동기가 참 많구만요.》(《구리 그릇》이라는 뜻), 《우리 작업반에서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생산 실적이 40%나 더 올랐네.》 (《같은 때》라는 뜻), 《작년 동기보다 날씨가 좋은데…》 (《겨울 철》이라는 뜻)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라는 말은 힘 들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쓰이기도 하며 잘못하면 혼란이 생길 수 도 있다. 이것은 사상과 감정을 나누는 도구인 말을 효과적으로 잘 쓰지 못 한 례이다.

차라리 《동기》라는 말 대신 《형제와 자매》, 《구리 그릇》, 《같은 때》, 《겨울철》이란 말을 쓴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말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생각을 어떤 말로 나타내며 또 어떤 말로 써야 남이 잘 알아 들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잊지 말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될수록 쉬운 말, 남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말, 자기의 립장과 생각을 똑똑히 밝힐 수 있는 말을 써야 한다.

쉬운 말을 하는 것은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세우는 데도 절실히 필요하다.

쉬운 말이란 전달하는 내용이나 뜻을 아무런 지장 없이 제꺽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을 말한다.

조선 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순 조선 말을 써 왔고 그것을 무한히 사랑하였다. 순 조선 말은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다.

우리가 쉬운 말을 쓴다고 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 조선 말을 적극 찾아 쓰며 잘 살려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비》, 《시비하다》란 말에 비해서 순 조선 말인 《밑거름》, 《거름주다》란 말은 얼마나 쉬우며, 《돈사》, 《우사》란 말 대신 《돼지우리》, 《외양'간》이란 말은 얼마나 듣기 좋고 민족적 정서가 풍기는가.

순 조선 말은 조선 사람의 감정에 맞는 훌륭한 말이다. 말하기 좋고 듣기에 구수하고 부드러우며 그 뜻이 알기 쉽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아껴 써 온 말이며 그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다듬고 손질해 온 말이다. 순 조선 말은 그 표현이 풍부하며 말하고저 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런 좋은 우리 말을 두고 왜 하필 힘든 한'자말이나 외국 말을 쓰겠는가?

어떤 청년들은 남이 잘 알 수 없는 힘 든 말을 써야 유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래야 위신이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동무들은 《김매기》, 《모내기》 라는 좋은 말이 있는 데도 《제초》니 《이앙》이니 하는 말을 애써 쓰려고 하며 《뽕밭》, 《겨울 구두》 혹은 《겨울 신》 하면 좋을 것을 《상전》 이니 《방한화》니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다.

또 이런 동무들은 두 가닥 말을 쓰기도 한다. 가령 집에서나 사사로운 일에서는 쉬운 말을 쓰다가도 회의 때나 사업 상에서는 힘 든 말을 쓴다. 그런 동무들은 회의 때에 다음과 같은 《유식한》 말을 많이 쓴다.

《우리는 가토를 대대적으로 증식하며 상전 조성을 적극 추진시켜 가잠을 비롯한 양잠 사업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인들이나 어머니에게는 같은 내용의 말을 다음과 같이 하기도 한다.

《우리는 집토끼를 많이 치며 뽕 밭을 많이 만들어 집누에를 비롯한 누에 치기도 잘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듣기 좋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두 가닥 말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힘 든 말을 쓰는 것이 결코 유식하다거나 위신이 올라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이것은 제 나라 말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쉬운 말을 쓰는 것은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 빨리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의 수행은 우리 말을 잘 씀으로써 보다 더 촉진된다. 새로운 과학 기술 지식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힘 든 말로 된 책을 보면서 그 뜻을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 만큼 뒤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요,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만 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을 주고 받는 데서도 꼭 마찬가지이다.

쉬운 말을 적극 쓰면 이런 문제가 저절로 다 풀린다.

힘 든 말을 버리고 쉬운 말을 쓰는 것은 간단한 일 같이 생각되지만 매우 힘 들고 복잡한 일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낡고 쓸 데 없는 것을 버리고 새것, 더 좋은 것을 살리기 위한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근 대 화》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 공화당》을 조종하고 있는 박 정희의 조카 사위 김 종필은 며칠 전에 《제 3 공화국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정력을 다하고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제법 큰 소리를 쳤다.

그가 말하는 《근대화》란 물론 농민들을 봉건적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토지 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문맹을 퇴치하거나 산업을 일으켜 보겠다는 것도 아니다.

《선진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 독점 자본과 군국주의 사조를 남조선에 부식하며 백화점에 일본 상품을 진렬하고 강습소를 설치하여 일본 말을 가르치며 일본 소설, 일본 영화, 심지어는 일본 종교와 류행가까지 수입해서 왜풍을 범람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근대화》 운동》의 내용이다.

이것은 《근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일본화》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지만 친일 주구인 그는 다만 자기의 《정치 철학》에 따라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의 일본화 운동이 《근대화》 정도에 머물렀기에 말이지 만약 그것이 《현대화》로까지 발전했더라면 그의 입에서 《창씨 개명》과 《내선 일체론》까지 튀여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담보하랴.

자립 경제와 예속 경제

전 진 석

오늘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는 자립 경제와 예속 경제의 판이한 길을 각각 걷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립 경제란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자체로 벌어서 완전히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를 말한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지 않고서는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나라의 륭성 발전을 기할 수 없다.

경제적으르 자립하지 않고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는 없다.

자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기의 힘으로 꾸려 나가지 못 하고 남의 힘에 의거하여 잘 살 것을 바란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외세 의존이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자주적 발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오늘 남북의 판이한 두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 ×

공화국 북반부의 경험은 자력 갱생의 사상에 기초하여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하고 자립 경제 건설에 인민 대중을 궐기시킨다면 자립 경제를 능히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당의 령도 밑에 해방 후 첫날부터 인민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예속성을 청산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결과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넘겨 받았으며 그것마저 3 년간의 전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였으며 민족 간부가 부족하였고 경제 건설의 경험이 없었던 형편에서도 북반부 인민들은 오늘과 같은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할 수 있었다.

북반부 경제는 자체의 기술, 자체의 원료, 자기의 간부, 근로자들의 힘에 의거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 보장하고 있다.

일제 때에는 나사못 하나 변변히 만들 수 없었던 우리의 공업은 자동차, 뜨락또르, 대형 발전기, 8 메터 타닝반, 3천 톤 프레스, 3천 톤급 대형 선박, 전기 기관차, 무궤도 전차 등 각종 기계와 설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공업으로 장성 발전하였다.

우리는 전후에 수 많은 중공업 공장들과 대규모의 용광로와 해탄로, 전기로와 평로의 설비들 그리고 세계 제 1 등급의 비날론 공장도 자체의 기술과 기계로 세웠다.

또한 우리에게는 튼튼한 경공업 기지가 있다.

수 많은 중앙 공업 기업소들과 함께 2천여 개에 달하는 지방 공업 공장들이 각종 경공업 제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카바징, 포플린, 비로도 등 고급 직물과 신발, 내의류를 비롯하여 각종 가구류, 가재 도구, 귀중품 등 일용품과 식료품을 다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중공업, 경공업 기지와 함께 강력한 사회주의 농업 기지도 축성되였다.

과거에 알곡 생산에만 치중하던 농업은 오늘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 양잠, 과수, 공예 작물 등 다각적 경리로 발전하였다.

경지 면적과 파종 면적은 계속 확장되고 천수답은 완전히 없어졌다.

농촌은 중공업으로부터 각종 농기계와 비료, 농약, 전동기, 뜨락또르, 자동차를 충분히 공급 받고 있다.

우리의 농토는 억년 흉풍을 모르는 당전 옥답으로 되였으며 농민들은 기계로 농사짓고 전기의 힘으로 탈곡, 정선 작업을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현대적 기계 설비로 장비된 경공업과 농업의 토대를 창설함으로써 과거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의 생산은 날을 따라 장성하고 있다.

1963년 북반부의 중요 제품 생산량

제품별	단위	생산량
전력	키로와트시	117억 6천 600만
석탄	톤	1천 404만
선철 및 립철	톤	115만 9천
강철	톤	102만 2천
화학 비료	톤	85만 3천
세멘트	톤	253만
직물	메터	2억 2천 700만
수산물	톤	64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에 의하여 구현된 자립 경제 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 ×

오늘 남반부의 현실은 북반부와는 판이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위정자들의 매국 배족적인 외세 의존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경제는 미국의 완전한 예속물로 전락되였다.

미제는 남조선 경제에 대한 예속화 정책에서 《원조》를 중요 공간으로 리용하였다.

미제가 《원조》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투입한 잉여 물자의 량은 1962년 말 현재 33억 딸라에 달한다.

그러나 이 《원조》 물자는 남조선의 경제 발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상품들이다. 《원조》 물자 중 83% 이상이 소비 물자이다.

미제의 《원조》가 《선의》로 가장된 침략과 략탈과 착취의 도구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미제의 《원조》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민족 경제는 여지 없이 파괴 몰락되였다.

남조선에는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거의 없으며 경공업도 극히 미약하다.

1961년 말 현재 남조선의 가공 공업 생산에서 방직, 식료품, 기호품 공업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경공업의 비중은 77.3%였으나 중공업의 비중은 19.3%에 불과하다.

중공업 중 금속 공업의 비중은 6%, 기계 공업은 4%이다. 기계 공업 중에서도 금속 기계, 전기 기계, 수송용 기계들의 비중은 2.5~1.4% 밖에 안 된다.

공업에서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의 이러한 위축은 공업 제 부문 간 및 공업과 농업 간의 유기적 련계를 파괴함으로써 남조선에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게 하였다.

오늘 남조선의 금속 공업은 선철과 강철에 대한 남조선의 보잘 것 없는 수요조차 12% 밖에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채굴 공업도 자체의 야금 공업 발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다만 수출을 위해서만 그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남조선 기계 제작 공업 역시 민족 경제의 수요를 보장하지 못 하는 형편이다.

지금 남조선 기계 제작 공업은 얼마되지 않는 남조선의 로동 수단의 수요량마저 그의 6.5% 밖에 공급하지 못 하고 있다.

생산되는 기계 제품도 농기구, 발동기, 양수기, 정미기, 제분기 등 간단한 농기구와 일부 부문품에 국한되고 있으며 중요 정밀 기계와 시설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남조선의 가공 공업에서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 공업도 현대 공업이 요구하는 제품들을 만들지 못 하고 다만 제지, 비누, 피혁 제품, 성냥 등을 생산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남조선에서는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발전이 억제되고 있다.

본래 경공업은 필요한 생산 수단을 중공업으로부터 공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 중공업이 파탄됨으로써 경공업은 자기 발전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비롯한 생산 수단을 공급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오늘 남조선의 경공업은 미국의 낡은 기계 시설 또는 일제때부터 내려 오던 손도구밖에 없다.

남조선 공업의 파탄은 농업 생산에도 큰 후과를 미치고 있다.

원래 남조선은 곡창 지대로서 최고 1,000만석 이상의 량곡을 외국에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식량 원천을 틀어 쥐기 위하여 지난 18 년간 5천여만석의 잉여 량곡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농촌경리를 파탄시키고 남조선 토질에 맞지도 않는 비료를 강제 투입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하여 농업 생산을 극도로 축감시켰다.

결과 오늘 남조선은 해마다 500만~600만석의 미국 잉여 량곡을 구걸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재정 예산의 40~50%와 금융 자금의 30%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중요 원재료 공급의 70~80%와 수입 무역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식량의 25%를 틀어 쥐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괴뢰 정부의 재정은 미국의 《원조》 딸라에, 공업과 운수는 미국의 원자재와 연료에, 농업은 미국의 비료에 매여 달리고 있으며 인민들은 미국의 잉여 량곡에 목숨을 걸고 있다.

남조선의 공업 제품별 대외 의존률

제 품 별	의존률
공작 기계	100
강 재	80
차 량	100
화학 비료	95
원 면	98
화학 섬유	100
인 견 사	100
가성 소다	90
석탄(철도 운수업)	73

남조선 경제가 미국 독점 자본의 완전한 예속물로 전락됨으로써 생산은 날로 감소되고 있다.

남조선 공업 생산 수준은 전반적으로 일제 시기의 3 분의 2로 저하되였으며 그 중 가업 공업 부문에서는 전쟁 이후 년 평균 생산 수준이 1940년에 비하여 56% 축소되였다. 농업에서도 알곡 총 생산량은 해방 전의 3분의 1로 감소되였으며 그 중 맥류는 75%로, 잡곡은 41%로 각각 격감되고 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의 경제는 미제에 철저히 예속되여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질식 상태에 빠져 들어 갔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남조선에서 년간 3억 딸라의 소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최소 한도의 소비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남조선 경제 형편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남조선 경제의 예속적 및 파국적 상태는 바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그에 추종하여 온 남조선 력대 위정자들의 매국 배족적인 외세 의존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의 《원조》를 반대하여 민족 주체적 력량에 의거하여 자주, 자립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미국 원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 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해방 후 19 년간에 걸친 생활 체험에서 얻은 결론이다.

× ×

오늘 남조선은 계속 외세에 매여달려 멸망과 망국의 길로 빠져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 두 길 가운데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복구 개건하며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외세를 배격하고 전 민족이 합작하여 자주, 자립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이 그를 말해 주고 있으며 해방 후 북반부 인민들이 이룩해 놓은 찬란한 성과가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이 마련해 놓은 튼튼한 밑천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슬기롭고 근면하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힘을 합친다면 점령 못할 요새는 없으며 극복 못할 난관은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를 배격하며 자립 경제 확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세 대륙을 휩쓰는 민족 해방 혁명의 불길

경 원 형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세 대륙에서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뀜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저주로운 제국주의의 숨통은 여지없이 끊어져 가고 있다.

세계 인구의 과반수와 광대한 령토를 포괄하고 있는 아세아에서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는 각국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 없는 규모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 아세아가 하나의 강력한 반제 투쟁의 《전투장》으로 화하고 있다.

남부 월남 전 령토의 4 분의 3,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만 명의 주민을 해방시킨 남부 월남 인민들과 그의 무장력은 지난 해에 1천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8만 명의 괴뢰군을 소멸하고 700여 대의 비행기를 격추 격상시킨 빛나는 전과를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년초부터 더욱 과감한 공격전을 전개하면서 멸적의 기세 드높이 적들을 도처에서 계속 족쳐 대고 있다.

미제는 또한 라오스, 캄보쟈, 쎄일론, 인도네시아 등 그들이 발 붙이고 있는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 있다.

한때 《암흑의 대륙》이라고 불리워 온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제국주의 후방을 무너뜨리는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다. 3 년 전만 하여도 10 개의 독립 국가 밖에 없었던 이 대륙에 지금은 35 개국에 독립의 기'발이 휘날리고 있으며 식민지 체계의 마지막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힘찬 투쟁은 전 대륙에서 련'이어 일어 나고 있다.

1월 12일 잔지바르에서는 제국주의 통치의 유물인 군주제가 전복되고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였다.

잔지바르 인민 공화국의 선포에 뒤'이어 탕가니카와 우간다에서도 식민주의의 온갖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 버리기 위한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콩고에서는 최근 미제와 그 주구 아둘라 도당을 반대하는 새로운 무장 폭동이 일어 났다. 무장한 수천 명의 애국적 인민들은 이미 수도 레오폴드빌 동쪽 퀼루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괴뢰 정부의 악질 관리, 미국 선교사들을 처단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장 투쟁은 《성난 불'길》처럼 광대한 지역에 퍼지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하바나까지,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부터 칠리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미제와 친미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1964년의 첫 혁명적 폭발은 파나마에서 일어 났다.

1월 9일 파나마 운하 지대에서 벌어진 파나마 인민들의 강력한 반미 진출에 질겁한 미군 야수들은 땅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적수 공권의 인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격분한 파나마 인민들은 미군과의 육박전에 나섰으며 《양키 제국주의를 타도하라!》고 웨치면서 수

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그칠새 없는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미국 대사관과 기타 기관들을 습격 파괴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으며 파나마 대통령 치아리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구 조차권》을 규정한 수치스러운 1903년의 《미국—파나마 조약》이 수정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관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였다. 워싱톤의 대변자들은 파나마 사태를 《카리브해 위기 이후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엄중한 위기》라고 비명을 올리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 나고 있는 강력한 투쟁들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 과거와 전통, 계급적 력량 관계 등에 있어서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또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우선 그의 중요 특징의 하나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휩쓸고 있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식민지 예속 국가의 각계층 인민들의 사회적 처지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에 의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으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에 공통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로부터 그들은 정견과 신앙과 처지가 각각 다르지만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을 맺고 다 같이 민족 해방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특히 로동 계급과 농민들 간에 긴밀한 전투적 동맹이 맺어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이 투쟁의 령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과거 민족 해방 투쟁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해 주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 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 력량을 단합하여 도처에서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 있으며, 재작년 12월 8일 영국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무장 폭동이 일어 난 브루네이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거의 전체 주민들이 망라되고 있다.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투쟁이 더욱더 광범하게 무장 투쟁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날 식민지 인민들의 투쟁은 시위, 파업, 청원 등의 형태를 보다 많이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리권에 자기 생명을 걸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이 스스로 식민지를 포기하거나 자주권을 줄 리 만무하다는 것을 오랜 력사적 체험을 통하여 자각한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무장한 적들에게 무장으로 대항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무장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북부 칼리만탄, 베네주엘라, 앙골라 등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치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전국의 20 개 주 중에서 11 개 주가 민족 해방군의 활동 무대로 전변되였다. 민족 해방군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와 베땅꾸르 독재 정권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수년간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앙골라 인민들은 전국 13 개 주 중 9 개 주에서 치어린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포르또갈령 기니아의 무장 부대들은 《나라의 전체 령토를 통제하기 위한 공격》에로 넘어 갔다. 모잠비크 인민들도 식민주의자들의 마지막 소굴을 향하여 육박하고 있다.

일곱 자루의 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쿠바 인민이 영웅적인 항쟁으로써 바티스타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승리하였으며 또 수백 자루의 렵총으로 무장 투쟁을 시작한 알제리아 인민은 수십만의 병력과 각종 현대적 무기를 동원한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7 년여에 걸쳐 영웅하게 싸워 승리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피압박 민족들의 무장 투쟁이 《세계 열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살 행위》이니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이니 하면서 모독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 리론을 폭로하여 주고 있으며 무장 투쟁은 반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민족 해방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 형태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투쟁의 예봉이 더욱더 미제에게 돌려지고 있는 점이다.

오늘 미제는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 직접, 간접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식민지들과 후진 국가들에 침투하여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 있으며 낡은 식민주의자들을 그들의 식민지로부터 몰아내고 자기가 대신 들어 앉으려 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낡은 식민주의자들에게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제공하며 《평온하지 않은》 지대들에 미군 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미제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의 예봉이 미제를 반대하는 데 돌려지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과떼말라에서 애국자들은 1960년 무장 봉기 이래 미제와 그의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미국인 소유 농장을 습격하고 미국 장원주 축출과 토지 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다. 력사적으로 자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있는 미제를 반대하는 파나마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잔지바르, 콩고를 비롯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반미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유엔의 기'발 밑에 콩고에서 미제에 의하여 빚어진 비극적인 사변은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미제는 콩고가 벨기 식민지 통치로부터 독립된 첫날부터 이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자기의 주구들과 《유엔군》을 통하여 콩고의 민족적 영웅 루뭄바를 살해하고 그의 사업을 계승한 기젱가를 감금한 후 친미 괴뢰 정권을 조작함으로써 사실 상 콩고를 미제의 예속물로 만들었다. 콩고의 비극은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바로 미제가 아프리카 인민들의 원쑤라는 것과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현 시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일반성을 띠고 있는 점이다.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후과를 남겨놓았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이 나라에서 자기의 종전의 리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신생 독립 국가들의 경제적 명맥을 장악하고 자기의 경제적 및 군사적 침략을 강화하며 나아가서는 독립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정치적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는 외국 자본을 몰수, 구축하고 산업의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병행하여 민족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각 민족 부대들 간의 련대성과 공동 전선이 강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반둥 회의》, 수차에 걸치는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더 강화하였으며 작년 탄가니카의 모쉬에서 진행된 제 3 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공동 투쟁 월간》을 설정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 아세아 아프리카의 련대성과 협조에 관한 결의를 포함하여 일련의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은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멀지 않아 세계적 범위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해 버리고야 말 것이다.

(시)

젊은 연공들에게

고 명 립

묵은 이끼 열어 붙은 벼랑에
찍혀지는 발'자국을 헤아리노라
구름'길을 쓰다듬는 아슬한 굴뚝에
걸린 바'줄의 높이를 생각하노라
그대 톺아 오르는 출근'길을 올려다 보노라.

높은 곳 중에서도 한끝,
푸르른 하늘의 마당은 그대들의 일터—
그대들의 억센 손은 무쇠 다듬이
번개'불도 그대들이 그어 놓더라
눈보라도 그대들이 일으키더라.

화로'불도 피울 수 없는 허허중천
하냥 얼굴엔 고드름이 열려도
언제나 가슴에 홰'불을 안고
대지 우에 척척 꽂아 가는 철기둥…
그대들은 나라의 지붕을 맡은 장사들이노라.

은하수 발판 우에서 땅을 가듯
활개치는 청춘 묘예사여
분수처럼 솟구치는 혈기로
그대들이 쌓아 올린 높은 위훈의 탑들
대숲처럼 솟아 별과 속삭여라.

사철 해'볕에 탄 그대들의 얼굴은
조국의 안녕을 지키는 피뢰침인양
구리'빛으로 숭엄히 번쩍이누나!
수령의 원대한 구상 청청대공에 엮어 가는
그대 붉은 룡이여, 청춘의 수리개여!

아침마다 큰 깃을 퍼뜩이며
태양을 향해 높이높이 오르는 그대들—
당이 항시 그대들을 올려 세우는 곳은
으쓱으쓱 키솟음 하는 영웅 조선의 높이!
날으는 천리마가 발구름 하는 곳!
오, 하늘을 뚫는 그대들을 사랑하노라.



잡지명 청년 생활 제 4 호 (루계 175)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4월 4일 발 행 1964년 4월 9일

7—430148 값 45 전

책 소개

《청년들에게》

판형 4×6 판 80 페지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는 말보다 더 위력한 말은 없다.

준엄한 폭풍을 헤쳐온 사람들, 간고한 혁명의 길을 헤쳐온 투사들—1930 년대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혁명적 수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쓴 생활과 투쟁과 미래에 대한 교훈적인 말들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 책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생활과 투쟁과 사상 수양에서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교과서로, 벗으로 될것이다.

이 책에는 박 달 동지의 《청년들에게》 오 백룡 동지의 《조선 혁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박 영순 동지의 《혁명에 대한 책임감》 전 문섭 동지의 《혁명 전사는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를 비롯하여 최 광, 윤 태홍, 리 두익, 김 옥순, 김 철호 투사 동지들의 글이 실려 있다.

민청 출판사 발행

《이 원쑤를 잊지 말자》

(림진강반의 력사)

판형 4×6판 161 페지

이 책은 림진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분계선 마을인 판문군 월정리가 1910 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걸어 온 장구한 길을 폭 넓게 개괄하고 있다.

이 책은 돈 있고 권세 도도한 량반, 지주들과 가난한 농민들간의 모순에 찬 생활상과 그 후 이 마을에 일제가 들어와 폭압적인 방법으로 억압 착취하는 강도적 만행, 그와 야합한 지주들이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잔인하고 교활한 죄악상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살인 통치와 만행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이 결연히 일어 나 싸우는 산사실을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 반영된 거대한 력사적 화폭을 통해 우리 나라의 과거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며 싸우며 일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교훈을 찾게 될 것이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간고한 길》

단편집 4×6 판 220 페지

《간고한 길》에는 계급 교양을 주제로 한 《장비룡》을 비롯하여 《꽃분이》, 《해'빛》 《버럭산》, 《빨간 댕기》, 《당원》 등 7 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있다.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발행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653 호)



《무장을 위하여》

김 희덕 작